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

양희은·강석우의

양희은 · 강석우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안재주, 홍지은

방송_MBC라디오 매일 아침 9:10~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400호 여성시대

표지_안홍범



CONTENTS

- 004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라디오는 양념이다
- 008 **이달의 편지**
나의 남편은 독립군 외
- 052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
고물은 줄었지만 그래도 봄은 오지요
- 0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건강하고 아름다운 침실을 위한 최고의 선택
- 065 **여성시대 꾸러미**
엄마의 파란만장 출산기 외
- 076 **아버지의 육아일기**
맞벌이부부에게 아이들 방학은?
- 079 **성장보고서**
사고치는 아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082 **부부클리닉**
때로는 부모도, 아이도 되는 품앗이부부로 살자
- 086 **요리보고 사연보고**
식탁에 들인 자연의 향기 봄나물
- 090 **대중문화 산책**
'막장' 과 '명품' 의 차이
- 09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엄마, 여행가요
- 094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건강행기기
- 096 **홍PD의 창과 창 사이**
내 마음에 봄을
- 098 **한 장의 생각**
모로의 (사포의 죽음)

2009.03 + March

여성시대 / 월간지 / 비매품 / 2009년 3월호 발행_2009년 3월 10일 발행인_(주)문화 방송 대표이사_엄기영 등록번호_라-5413 편집·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윤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일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라디오는 양념이다



충남 조치원의
이재정 씨를 찾아서



하루가 열리는 아침 시간, 여성시대 애청자 이재정 씨는 분주하다. 열 명이 넘는 하숙생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방금 지은 밥에 따뜻한 국, 밤새 고심한 반찬들이 상에 놓이면 방마다 두드리며 밥상이 차려졌음을 알린다. 하숙생들의 빈번한 숟가락질이 끝나고, 각자 학교를 향해 쌀물 빠지듯 나가면 그때서야 숨을 고를 수 있다. 상을 치우고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면 언제나 어김없이 여성시대가 흘러나온다. 딱 10년만 해야지 마음먹고 시작한 대학교 앞 하숙집이 이제 16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원룸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 하숙방 채우기도 만



만치 않다. 대문 앞에 걸린 플래카드도 직접 만들어 걸어 놓았다.

하숙집 안주인을 하며 이제정 씨는 성격도 많이 변했다. 내성적이라 누구에게 말도 못 걸었는데 객지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엄마처럼 살갑게 해주고 싶어 말 수도 부쩍 늘었다. 신선한 재료로 맛난 밥을 지어주고 싶어 하루하루가 동동걸음이다.

아침·저녁밥을 해대야 하니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환갑기념으로 여동생 둘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태어나 처음으로 부은 적금 300만 원으로 여행을 준비중이다. 물론 학생들이 집으로 가는 방학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제정 씨의 하루는 대부분 부엌에서 이루어진다. 자그마한 공간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밥과 반찬을 만든다. 밥과 반찬들 사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사연이 양념이 되어 밴다. 이제 남편 없이는 살아도 라디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한다. 딸에게 당부해 놓은 일이 있다. “혹시 이 어미가 죽으면 내 산소 옆에 라디오를 틀어 놔다오.”

라디오와 함께 하루가 가고 다시 또 하루가 시작된다. ♥

“
혹시
이 어미가 죽으면
내 산소 옆에 라디오를
틀어 놔다오.”
”





• 일러스트_ 김금복

Letter 01_ 나의 남편은 독립군

Letter 02_ 네 자매의 여행

Letter 03_ 누님의 암 투병기

Letter 04_ 꽃무늬 '행님들'

Letter 05_ 17년 만의 외출

Letter 06_ 고운 옷, 고운 마음

Letter 07_ 요즘 시어머니들

Letter 08_ 테이크아웃 사건

Letter 09_ 딸들과 함께하는 새 삶

Letter 10_ 금주를 실천하며

Letter 11_ 알코올중독 남편

Letter 12_ 한 명 남은 이발고객

Letter 13_ 단독주택으로 이사해보니



나의 남편은 독립군

Letter 1

● 글_이선애 |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남편은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위원장, 무슨 총무, 무슨 회장 등 직함만 열 개가 넘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자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회성 있고, 인간관계 폭이 넓으며, 사교적으로 보여 참 멋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살아가니 그런 게 가정생활에는 도움이 되질 않더군요.

모임이 많다는 건 그만큼 모임 기회도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밤중에도, 일요일에도 각 모임 회원들의 애경사나 대소사에 참석해야 하고, 무슨 개점이나 승진 등에 축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말이지 남편은 가족과 휴일을 함께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은 늘 가족보다 바깥일이 우선이니깐요. 아이들도 그걸 알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아예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아빠는 아예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니까요.

그 때문에 15년 동안 살아오면서 싸움도 많이 했죠. “당신에게 가족의 의미가 뭐냐?”, “아이들 셋은 내가 데리고 온 의붓자식이나?”, “밖에다 하는 반만 해봐라” 하면서요.

그때마다 남편은 “남자가 바깥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집안일에 소홀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독립군을 예로 듭니다.

“남자가 가산을 정리해 독립군이 되어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부인

들은 어려운 집안살림 꾸리며 일본순사의 감시와 고초까지 당하면서도 그 모든 걸 감내했어. 그에 비하면 당신은 호강에 빠진 거라고.”

제가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당신, 무슨 무슨 협회 일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는 독립군 활동하고 비교가 돼? 당신이 독립군이라면 나는 일본순사의 물고문·고춧가루 고문도 기꺼이 견딜 수 있겠네. 그런데 당신, 열 개나 넘는 모임이라는 게 만나면 남녀 혼합으로 이곳저곳 옮기면서 밤늦도록 술 마시는 일이 주 업무 아냐. 아니면 놀러다니 데 열 올리고 말이야.”

그러다보면 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아빠가 자주 싸우면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살려고 해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문과와 이과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특히 그랬습니다. 아들은 “내 친구 아빠들은 같이 등산도 가고, 목욕탕에도 가면서 자식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진로에 대해 조언도 해준다는데 우리 아빠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시댁에 제사가 있을 때는 아침 일찍부터 호출되어 허리 한번 펴 새 없이 하루 종일 음식 장만해 제사상을 차리는데, 남편은 초등학교 여자동창 부친상에 가 밤샘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편은 무슨 모임 회원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내 생일은 안 챙겨줘도 모임 회장 마나님의 생일은 꼬박꼬박 챙겨주는 등 그런 예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저더러 “남편을 잘 만났다” 느니, “밖에서 저리 잘하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며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 얼굴 살려주려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 ‘제 남편은 사회에서는 백점짜리지만 가정에서는 빵점입니다’ 라고 속으로만 외칠 뿐이죠. ♥



네 자매의 여행

◎ 글_임복희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지난해 9월, 자매 넷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큰언니는 74세, 둘째 언니는 68세, 셋째언니는 65세이고, 캐나다에서 온 막내인 저는 60세입니다.

조카가 고급차를 선뜻 내주더군요. 저는 운전만 하기로 했고,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식사를 맡기로 했으며, 셋째언니는 오십견을 앓고 있는 중이라 면제를 받았습니다.

큰언니가 우리 넷 중에 하나라도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자꾸만 보채는 통에 이번 여행을 하게 된 거지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잔뜩 쌓인 아이스박스도 씻어 햇볕에 말려두고 가스버너도 점검했습니다. “늙어 기억력이 좋질 않다” 고들 하니, 메모지에 준비물 하나하나 다 적어가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날 익산으로 가 셋째언니를 태우고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에는 어렸을 적 한 우물을 같이 먹고 살았던 이웃집 언니가 요양 차 살고 있으니 그분 집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여자들이 다식이 젊어서는 없어서 못 먹고, 중년에는 7남매 키우느라 못 먹고, 말년에는 입맛이 없어 못 드셨던 우리 엄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진 엄마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한 번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달간 누워계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



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둘째 언니가 엄마가 주무시는 줄 알고 머리맡에서 “엄마! 이제 이 한 뭉고 풍진 세상 다 놓아버리고 저 편한 세상으로 가세요”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눈을 번쩍 뜨시고는 “뭐라고?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내 나이가 돼 보라. 꼭 잠을 한번 길게 자고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다”라며 큰이들을 불러 “미국에 가면 이 병도 낫는다는데 미국에 막내아들도 있으니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어머니는 아주 편한 저 세상으로 멀리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웃었다 울었다 하다가 닭을 읊소리를 듣고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씩 달리는 차 안에서도 늘 서로 오가며 살았음에도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이야기가 도무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만약에 남자들 먼저

가면 우리 모두 합쳐 한집에 살자’고 합니다. 우리 넷 모두가 밥 하나 하는데, 또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그 방법과 맛이 모두 제각각인데 말입니다.

“언니! 뭐 늙어서 같이 살자고? 글썄 그제 얼마나 같까?” 하면서 캐나다에 사는 내 친구를 예로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의 시어머니와 이모가 각각 혼자 집 한 채씩을 지니고 사는데, 친구 남편이 어머니와 이모를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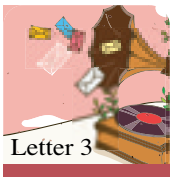
“엄마! 이모! 이 땅에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두 분 각각 집을 지니고 살고 계시니 이건 국가적 낭비예요. 양로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한 집에 합쳐 사세요.”

그러나 그 친구는 두 분이 따로 사시는 게 이해가 간다고 한대요. 언니가 동생 집에 가면 3일을 못 넘기고 빠져서 가버리고, 다음날 동생이 “미안해” 하고 꼬리를 내리고 언니 집에 갔다가 다시 3일도 못 넘기고 빠져서 가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 분이 언니가 동생 집으로 동생이 언니 집으로 오가며 싸우며 사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넷이나 되니 어떨까요? 여행 중에도 나는 잡곡밥을 좋아하는데, 둘째 언니는 잡곡밥은 잘 안 넘어간다고 싫어하고, 된밥 좋아하는 사람과 진밥 좋아하는 사람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큰언니가 드라마 <대장금>의 흥내를 내며 물 조절을 하긴 했지만요. 휴게소에서 끓여먹던 라면 역시 나는 면이 퍼지는 걸 싫어하니 맨 먼저 퍼 담고, 좋아하는 순서대로 그릇에 옮겨 담기도 했습니다.

여행 중에 내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예정된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모처럼의 여행이었기에 모두 아쉬워했지만 다음을 기억하며 더 많은 추억을 담고 왔지요.

“언니들! 건강하기만 해. 내년에 또 휴가 받아 전국을 돌아다니고요. 알았지? 지리산에도 올라갔고, 소매물도 등대까지 올라갔던 그 다리 힘, 그대로 지켜요.” ♥



누님의 암 투병기

● 글_김홍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삼과 죽음은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와 누님 사이는 어머님과 사이
다음으로 각별했지요. 어느 날, 개인택시를 하는 저에게 매형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남, 어디야?”

“네, 고속터미널인데요?”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형, 왜요?”

“누나가... 흑흑흑.”

깜짝 놀란 저는 “왜요? 왜 그러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매형은 울
면서 “얼른 집으로 와”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새벽길을 달려 신림동 누님 댁 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누님
이 벌써 저 세상으로 가신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눈시울이 젖
어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지요. 대야에 사람에게 나온 것으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피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리고는 힘 좋은 두 아들이 엮고 병원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온가족이 영영 울었지요. 응급처리를 하는 동안 매형이 겨우 이야기를 꺼냈습

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조금씩 났는데, 그날은 갑자기 많은 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혈이 안 돼 저에게 전화를 하고 도착할 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119와 응급실이 생각 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더군요. 지혈이 되고 응급처
치가 돼 다음날 원장님이 오시면 결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전 누님이 제게 어떤 존재인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도록 한글을 몰랐던 내게 글을 가르쳐주고, 어머님 다음으로 사
랑을 주었던 누님. 군에 입대할 때는 50리 충주장까지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고
기와 생선을 사고 디딜방아로 찹쌀을 찧어 반찬과 인절미를 소반 가득 차려놓
고 “많이 먹고 배곯았던 기억 다 잊고는 군생활 잘해라”고 하셨던 누님. 그것
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닭 잡고 토끼 잡아보신을 시켜주던 누님이었습니다.

그 누님을 제가 같이 있자고 매형까지 설득해 서울로 오게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그냥 시골에 계셨으면 저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씻는 등 마는 등 집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는 저보다 더 좌불안석이더니 일하다 온 사람에게 다시 가자는 소리를 못 하고
“어서 한숨 붙이고 신림동에 가자”고 하더군요.

아침이 되어 밥을 대충 먹고 신림동 병실에 도착하니 누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벽에 우리 동생 놀랬지?” 하더군요.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병명이
뭐냐?”고 매형에게 물으니, “폐암인 것 같다”며 “조직검사를 보냈으니 기다려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폐암을 잘 고친다는 병원을 알아보았습
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병원 병실로 입원수속을 밟아 진단을 받으니 폐암이 전
이되어 흉선암이 됐다고 하더군요. 병에 대해 문의한지라 안면이 있는 수간
호사에게 “흉선암이 뭐냐?”고 물었더니,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이주머니, 힘



들겠네요” 합니다.

또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군요. 매형과 제가 주치의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데 폐암이 전이돼 흉선암이 됐고, 흉선암은 명치뼈 사이에 박힌 놈이라 수술도 안 되고 약물치료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약물치료를 하는데 복수가 차올라 옆구리를 뚫어 엄지손가락 굵기의 호스를 박아 2,000cc씩 복수를 빼내야 했습니다. 누님은 항암주사를 맞아 머리카락은 다 빠져 모자를 써야 했지요. 그렇게 정 많고 활기 넘치던 누님도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넉 달이 되면서부터는 옆구리에 복수 주머니를 차고 항암 주사약을 달고 피골이 상접하여 약물 때문인지, 먹는 것도 없는데 화장실을 계속 다니며 토약질만 했습니다. 누님은 시중을 드는 저에게 못할 짓이라며 밖에 나가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형과 조카들에게 상의했더니 조카들은 “그래도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를 벌컥 내며 “너희들은 엄마지만 나는 피를 나눈 형제다. 업

마가 저리도 원하니 돌아가시기 전에 전국일주나 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누님에게 알렸더니,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도 상의를 했더니,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누님에게 “김명자 씨, 호스 뽑고 복수 못 차게 약물을 쓸 텐데 아파도 참아야 해요” 하니, 누님은 “이렇게 다 뚫고 토약질하면서도 살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아프려요. 제발 해주세요” 했습니다.

호스를 뽑는 날, 누님이 소리를 안 지르려고 가제수건을 겹겹이 물고 참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한 짓인가?’ 하는 후회가 밀려오네요. 만약 나가서 잘못되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머칠 뒤, 의사 선생님이 “김명자 씨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보통 아픈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그걸 참았는지. 김명자 씨는 이제 살았어요. 복수가 안 차니까 이제 살 일만 남았어요. 퇴원해도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 줄은 몰라도 얼마나 기쁘던지요. ‘잘 결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생활 꾸러미를 트렁크에 싣고 약봉지 보름치를 받아들고

‘이 약도 다 먹기 전에 누님이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림동 누님 댁으로 가는 내내 ‘누님 생명이네 내가 공연히 결정했나?’ 생각하면서도 생질한테 여행경비 120만 원을 받아 저녁 10시쯤 강원도 양양으로 출발했습니다. 한 병실에 있던 분 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봉화를 거쳐 안동으로 가 하회마을을 구경하고 자반고등어로 식사를 했습니다. 거제도를 거쳐 진주 축석루도 구경하고, 해남 두륜산 대둔사에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하룻밤을 또 보냈습니다. 다음날 진도를 관광하고, 다시 목포로 가 활어시장을 구경하는데 누님이 민어를 가리키며 회가 드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이 양반이 돌아가시려나. 뜬금없이 회라니’ 했습니다.회는 결국 우리가 먹고 누님은 매운탕 국물에다 밥을 한술 말아뺄을 흘리며 다 드셨습니다.

“누님, 괜찮아요?”

“어, 괜찮다.”

숙소에서 이런저런 긴 이야기를 나누고, 4박5일의 여정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크게 호전되어 15일에 한번 가던 병원을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가더니 결국 발병하기 전처럼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멀쩡하던 매형이 집 하수구 맨홀뚜껑을 열다가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 입원을 했는데, ‘괜찮다’고 자가진단을 하며 고집을 부리는 동안 치료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매형은 1년 6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힘들게 하다가 어느 가을날 제 눈에 눈물샘을 깊게 파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조카들도 많이 울면서 “사람 목숨은 인력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암과 투병하는 환자분들 힘내세요. 암이란 놈도 사랑 앞에서는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호자 분들은 힘들더라도 사랑과 웃음으로 환자를 감싸주세요. 그러면 암이란 놈이 겁에 질려 줄행랑을 놓을 것입니다. ♥



꽃무늬 ‘행님들’

◎ 글_강병훈 | 경남 진주시 상봉동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시선(視線) 처리가 난감할 경우가 있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와 테이블 없는 의자에 마주 앉았을 때나 동네 목욕탕에서 문신하신 ‘행님들’ 만났을 때가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동네 목욕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목욕탕에 들어서니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울긋불긋 꽃화단이 어느 ‘행님들’의 등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네 목욕탕은 ‘용(龍)의 전성시대’였는데, 이제는 ‘꽃의 전성시대’로 물갈이가 되었나 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문신한 형님들은 자기 식구들끼리 같은 무늬로 하는 것 같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벽지도 비슷한 무늬와 비슷한 색깔의 벽지로 도배해야 정신이 산만하지 않고 차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문신하신 형님들이지만 그런 미의식이 없겠습니까?

처음 뵈는 형님들이지만 “문신하셨습니까! 행님. 보기 좋습니다! 행님.” 이런 말로 안면을 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 시선을 안 마주치고, 꽃무늬 화려한 형님들의 등이나 흘끔흘끔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형님이 제가 있는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머리 맞대고 도란도란 이야기 하듯 목욕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수십 송이의 장미 화원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탕 속에 ‘몸을 지지며’ 형님들의 등에 피어난 ‘장미꽃 한 송이, 두 송



이'를 세어 보고 있는데, 형님들의 등 사이로, 자그마하고 아기자기한 팔이 하나 쏘옥 튀어나오더군요.

‘저건 머꼬?’

보스가 서너 살 꼬맹이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곱게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저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웠을 동요가 제 입에서 자연스레 흥얼거려졌습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지요, 행님 유치원, 행님 유치원.”

하얀 얼굴에 엄마의 숨씨인지, 머리에 양증맞은 파마기가 있는 조그만 계집 아이는 예뻐합니다. 보스가 보물 다루듯이 아이를 비누칠해 씻기고 있는 동안 동생급 형님은 그 커다란 등을 접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접어 보스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럴 때 보면, 형님들도 천사표입니다.

아이의 목욕은 두 분 형님의 가상한 노력으로 끝나고, 두 분 형님도 목욕을 마쳤는지 탈의실로 나가더군요. 저도 잠시 뒤에 탈의실로 나갔습니다. 두 분 형님이 제가 탈의실에 나간 그 시간까지 탈의실에 있었습니다. 보스는 아기에 게 바디로션도 발라주고, 머리를 말려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보물 같은 아이가 귀여워 그렇게 정성을 다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 분명 집에 가서 마누라의 용의감사에 안 걸리려는 계산이 더 클 것입니다.

“요렇게 밖에 못 씻겼소? 귀 뒤에 때 봐라. 때! 비눗물 자국이 그대로 있다 아이가. 다시 가서 씻겨 오소, 목욕비가 아깝다.”

제가 많이 들던 소리입니다. 사람사는 게 다 같지, 누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보스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래 끓기 일보 직전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산서 차 왔더나? 알라들 내리오지마라 캐라.”

“예, 행님!”

“그라고...” 보스는 항상 3초쯤 여유를 두더군요. 아! 저도 꼭 한번 써먹을 겁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3초의 여유.

“고노마는 우찌 됐노? 우찌 잘 산다카더나? 내가 함 가바야 될 까다. 니가 함 알아바라.”

“예, 행님!”

중간 형님은 마른 수건을 들고 내시가 입금금 시중들 듯 시럽해 보스의 지시를 받들어 모시고 있었습니다. 꼬맹이는 바디로션도 다 발랐고, 보스인 아빠가 입혀 준 옷을 입고 장미꽃 화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알라 좀 바라.”

“예, 행님!”

보스는 먼저 옷을 갈아입고 있던 동생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동생들의 입무에는 ‘알라’도 봐야 되는 항목이 있는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보스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동생은 아이를 보는데, 목욕탕 안에서는 안 흘러던 땀을 탈의실 시원한 곳에서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미꽃 화원을 벗어난 아이가 탈의실이 좁다고 뛰어다니니, 감당이 안 되나 봅니다.

이윽고 번잡한 절차가 끝나고, 시골스러운 우리 동네 목욕탕의 좁은 탈의실을 점령하고 있던 두 분 형님이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있던 사람들이 구시렁구시렁 뒷말을 하느라고 잠시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라도 난 듯 다다다닥 2층 계단을 급하게 밟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걱 2층 탈의실 문이 열림과 함께 동생급 형님이 고개를 들이밀어 탈의실 안의 사람들을 주욱 둘러본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음 땀!’ 놀이를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사람들이 동작을 멈추고, 스틸사진 속의 정지화면이 되는지 정말 신기하더군요. 주욱 탈의실을 돌아보던 동생급 형님의 이글거리는 눈에서 ‘이놈들, 우리 나가고 나서 행님하고 내하고 욕했제? 오늘 너희들 뜨거운 맛 좀 봐라!’ 가 읽혀졌습니다.

탈의실을 얼어붙게 하던 동생급 형님. 이글거리던 눈동자가 살며시 풀어지며 배시시 웃음과 함께 탈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탈의실 의자에 놓아둔 파마머리 꼬맹이의 보라색 겨울 점퍼를 짹째 집어 들더니, 다다다닥 올라온 2층 계단을 다시 후다다다닥 뛰어 내려갔습니다.

조카 추울까 봐 겨울 점퍼 챙겨주는 삼촌이 있어 아이는 행복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사입니다. ♥



17년 만의 외출

◎ 글_홍영미 | 서울시 강동구 길동

빠듯한 살림에 가족들만 챙기며 살다가 ‘서울 촌년’이 되어버린 나. 총명과는 점점 멀어지는 머리. 그 혼한 영화표 값조차 반찬값에 비유하는 산수만 인이 박힌 듯 뇌리에 가득 있는 나.

큰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학부모 임원활동을 하며 어울리던 엄마들과 세월 좋게 어울려 다닌 적도 있었지만, 그도 아이들이 집에 없는 낮 동안 일 뿐이었다. 나이트클럽을 가자며 들떠서 떠들어대던 여자들은 퇴근할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했다며 흥이 났지만 내겐 ‘열흘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얘기였다. 아니 꿈엔들 등장할 수 없는 소재였다.

주부가 늦은 밤 어린아이들을 팽개치고 나이트클럽에 간다는 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들의 자유만큼은 정말 부러웠다. 부인을 배려해주는 남편들과 살아가는 그녀들의 복이 부러웠다. ‘내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까?’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자유였다.

불만이 가득할 때는 부부싸움을 했지만 기대감을 낮추고 낮추다 보니 어느새 남편을 향한 희망과 기대감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버리면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흘러 온 지난날을 거슬러 비교해보면 쇠퇴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닌 듯싶다. 평생 악연으로 바라볼 것 같던 부모님이 사위를 바라보는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남편 역시 장인·장모님 대하는 마음이 살가워졌다. 감사한 일이다.

설 연휴가 끝난 이틀 후,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문자메시지가 떴다.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어쩌다 한번 ‘이즘마닷컴’의 이벤트 코너를 방문하는데, 우연찮게 <친정엄마와 2박3일> 연극을 알게 되었고, 엄마와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글자 남겼는데, 감사하게도 당첨됐다.

바로 엄마에게 연락을 드렸다. 하지만 엄마는 “집안에 행사가 많았던 탓에 직장을 빠진 날이 많았다”며 “눈치가 보여 더는 빠질 수가 없다”고 미안해 하셨다.

평일 밤 8시에 공연이 있어 나도 고민을 해야 했다. 짐질방조차 아이들 없이 혼자 가는 걸 걸고 넘어지는 남편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싸우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고민되는 것들은 내 쪽에서 알아서 포기했던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놓치기 싫은 연극이었다.

아이들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니 흔쾌히 다녀오란다. 남편에게 운을 떼보니 “장모님이 안 가신다는데 뭐 하러 가냐?”고 한다. 짐작했던 반응이었지만 친구와 다녀오겠다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갈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늦은 시간에 친구랑 가려 하나?”

걱정이 되면 함께 가서 보자고 했더니, 이번엔 묵묵부답이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도 미리 말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 말에 닫았던 입을 남편이 열었다.

“당신이 언제부터 연극을 봤다고 그래? 영화는 좋아했지만.”

“내가 영화를 좋아했던 것은 기억해? 그런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영화관을 몇 번이나 갔어? 그리고 당신 만나기 전에 친구들이랑 연극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 내가 늦은 시간에 혼자서 어딘가를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내가 고집을 부리면 양보 좀 해줘. 이렇게 구차하게 말하는 것이 날비참하게 하나까.”

내 말에 다시 묵비권을 행사하는 남편의 반응에도 나는 가야겠다는 마음을



굳히지 않았다. 나처럼 ‘서울촌년’이 되어 살아가는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하니 오히려 “괜찮겠니?” 하며 걱정을 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연극을 보는 당일까지 아이들에게 며칠 집을 비우는 사람처럼 당부사항들을 세뇌하듯 되풀이했다.

“싸우지 마라.”, “해놓을 것들을 알아서 챙겨라.”, “밥 챙겨 먹어라.”, “엄마에게 연락할 것이 있다면 문자로 남겨라.”, “다음 날 학교 갈 것을 생각해서 엄마가 오기 전에 자고 있었으면 좋겠다.”, “혹여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힘들게 하더라도 동요하지 마라” 등.

걱정을 엑세서리처럼 안고 살아가는 내가 안쓰러운지 아이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재미나게 보고 오라고 했다. 30분 전에 도착하라는 주최 측의 안내문구가 있었고, 초행길을 감안해서 6시쯤 집에서 나갈 참이었다.

며칠 일을 나가지 않던 남편이 아침 9시를 넘겨서 나갈 때 오랜만에 아이들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고, 오후 5시쯤 연락을 했다. 그런데 벌써 술에 취해 허가

말린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화가 치솟았다. 내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방해하려 작정한 듯 살아온 남편에게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전화를 끊고 낮이 빠져 앉아 있는데 아빈이가 평소보다 일찍 학원에서 귀가했다. 눈치 빠른 녀석이 제 방에 가방 놓기가 무섭게 내게 다가왔다.

“왜요, 엄마. 가실 준비 다하셨어요?”

“안 가야 할까보다. 아빠가 벌써 술에 취했네.”

“휴우!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은 일찍 왔어요. 아영이 늦게 온다고 하면 엄마 대신 데려오려고요. 전 아빠 술 취한 거 걱정 안 돼요. 엄마가 오랜만에 바람을 쐬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깊은 한숨을 쉬던 녀석이 날 위로했다. 중3이라는 부담감으로 부쩍 고민이 많아진 녀석이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그래! 가자. 모처럼 생긴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없어. 나도 숨 좀 쉬자.’

1시간 일찍 도착한 시간에 친구와 눈에 띄는 식당에서 배를 채우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문자가 벌써 두 개가 와 있었다. 역시 딸이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눌렀다. ‘남편에게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나?’ 하는 떨쳐버릴 수 없는 걱정을 안고 말이다.

다행히 딸의 목소리가 밝았다. 잘보고 오라는 말쑥을 꼭 전하고 싶었다. 아빠는 잠이 들었고, 기특하게도 오빠와 자기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반찬과 밥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까지 깨끗이 끝냈다고 했다.

평일인데도 공연장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 마음도 다시 떨쳐버렸다. 배우들의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를 꺼달라는 안내 방송에 따르는데 마음이 불안해졌다. 연락되지 않으면 안달할 남편을 알기에...

실컷 눈물을 빼고 오겠다고 각오했던 마음이었는데, 배우들의 열연에도 내

마음이 감응되질 않았다. 앞뒤와 양옆에서 코를 훌쩍이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앉아있는 것은 나와 친구뿐이었다. 연극이 끝나기가 무섭게 꺼놓았던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보니 벌써 부채증이 찍혀 있었다.

“아! 우리 너무 메마른 인간들 아니냐? 다들 울고 있는데, 나와 너만 얼굴이 너무 건조하잖아.”

친구는 그저 웃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어디냐고, 이제 끝나서 가고 있다고 하니, 빨리 오란다. 가고 있다는 사람에게 빨리 오라니 지하철 안에서 뛰어야 할 판이었다. 곁에 있던 친구가 나를 보고 말하길 좋겠다. 남편의 사랑이 넘쳐서. 자신은 어쩔 전화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투덜거렸다. 난 오히려 “네가 더 부럽다”고 했다. 지하철을 갈아 타기 전까지 아쉬운 마음을 나눴다.

40분가량 타고 달리는 지하철 안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많은 인파들이 있다는 것조차 놀라운 ‘서울촌민’인 나는 그동안에도 남편에게 두 번의 전화를 더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잠잠히 있어주던 아들의 전화도 받았다.

“엄마, 피곤하시죠?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연락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왜 여적 안자고 있어. 어서 자. 엄마가 애냐? 데리러 오게?”

“숙제는 좀 전에 끝냈어요. 엄마랑 잠깐이라도 데이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집스럽게 지하철 개찰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의 손을 잡고 지하철 계단을 벗어날 때 아들이 연극은 어땠냐고 물었다. 현장체험을 다녀 온 녀석에게 내가 물었던 것처럼.

내가 인내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헛되지만은 않은 듯하다. 요즘 아이들과는 아직까지 시뭇 다르게 커주고 있는 내 분신인 아이들이 있기에 말이다. 17년 만에 힘겹게 나섰던 외출 때보다 더 커다란 감동을 느낄 품에 안고 살았던 이들에게 받으며, 술에 덜 깬 상태에서 과하게 반겨주는 남편의 마음도 받아 넘길 수 있었다. 내 리얼리티 삶이 무료하지 않아서 좋다고 그저 받아들이고 싶다. ♥



고운 옷, 고운 마음

● 글_권주선 | 대전시 중구 대사동

자식 자량은 ‘팔불출’이라더군요. 그런데 전 며느리 자량을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 자량은 한 ‘육불출’쯤 될까요?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60세를 바라보는 늙은이에게 고운 옷이 생겼거든요. 제 새끼 한복 사려간다고 나간 며느리가 조금 뒤에 다시 돌아와 빨리 마당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도 내려와 보시면 안다고 재촉을 하니 영문도 모른 채 혹시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했나 싶어 얼른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차에 태우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애기 옷 사러 가보니 거기에 어머니가 입으시면 아주 예쁘고 멋있을 것 같은 옷이 있어서 모시러 왔으니 어머니는 절대로 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 넓은 매장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 한복이 꼭 차 있는데, 정말 우리 옷의 아름다움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기특한 그 마음을 거절할 수도 없더군요.

며느리가 말한 옷은 마네킹이 입고 서 있는 빨간색 저고리에 까만색 치마누비옷인데, 며느리 말대로 정말 예쁘고 멋있었습니다. 그 옷을 시어머니에게 입혀놓고 제 옷을 산 것처럼 어찌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구, 어떤 집은 며느리가 싫어해서 아들이 제 아내 몰래 옷을 사주는 집도 있는데, 저 며느리는 시어머니 옷 사 입히고 저렇게 좋아하네” 하며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하더군요.



색동옷을 샀다고 좋아라고 날뛰는 아이들과 같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새끼 옷을 사려 갔으면 맘에 드는 제 옷 하나라도 사는 게 보통인데, 어찌 시어머니에게 잘 맞는 옷이 눈에 띄어들어오고 사주고 싶어 다시 차를 돌려 집까지 왔는지요. 며느리의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전 오늘날도 그 고운 곳을 입고 나들이를 했는데, 금방 할머니 패션모델이라도 된 듯 걸음걸이도 곱게, 표정도 은은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



요즘 시어머니들

● 클_애청자

저는 70세의 할머니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내 살림을 하며 누구의 제약도 안 받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합치고부터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모든 것을 며느리 잣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복종하며 살았지만 요즘은 반대로 며느리가 잔소리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맞춰 살아야만 합니다.

구세대인 70대 시어머니와 신세대인 30대 며느리가 함께 살려니 모든 것이 맞지 않아마찰이 생기곤 합니다. 며칠 전에도 사소한 일로 며느리와 다투었습니다.

저는 틀니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는 틀니를 물에 담긴 그릇에 담가 놓습니다. 아침에 틀니를 끼우고 그 그릇을 싱크대에서 씻으며 며느리에게 틀니를 담그게 안 쓰는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릇 씻는 걸 보고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며 “어머니, 그 그릇을 왜 싱크대에서 씻으세요? 그리고 그 수세미로 씻으면 어떡해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만 먹는 그릇에 내 이를 담갔는데 뭐가 어째서 그러느냐? 그럼 어디서 씻니?” 했더니 며느리는 “그런 건 화장실에서 씻어야죠” 하더군요.

며느리는 제게 밥을 줄 때도 저만 먹는 그릇을 따로 정해놓고 그 그릇에만 주고, 밥도 작은 상에 차려서 제 방으로 갖다주고 저 혼자 먹게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잠시 후,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플라스틱 그릇과 수세미를 가져다주면서 또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재탕하면서 “어머니는 더러운 것도 구별 못 하세요?” 하면서 화장실에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못 견디겠더라고요.

싱크대에 수세미가 두 개가 있었는데, 왜 두 개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 밥그릇을 씻는 수세미는 따로 정해놓고 쓰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 앞에서 죽어지내니까 아주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한다 싶고 나도 뽐났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싶어 저도 큰소리를 냈습니다.

“내 틀니를 화장실에서 깨끗이 씻어 그릇에 담갔는데 그 그릇을 싱크대에서 씻는 것이 잘못됐냐? 내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렸냐? 너 깔끔 떠는 성격 못 고치듯이 나도 70년 동안 살아온 내 습관이나 성격 못 고친다. 너하고는 맞지 않아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 나 방 하나 얻어주라. 따로 나가서 혼자 살게 말이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또 언성을 높이며 대드는 겁니다. 둘이 티격태격하니까 출근 전인 아들도 와서 언성을 높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너무하세요. 그런 것은 화장실에서 씻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방을 얻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때 제 집을 판 돈도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후, 저는 화가 치밀어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삭이나,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친구 집에 갈 수도 없고, 온천에 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온양온천까지 지하철이 생겼다니까 차비가 무료일 테고, 시간 보내기도 좋을 것 같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온양온천은 2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



졌더군요. 역을 크게 새로 지었고, 큰 건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갔던 온천탕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온천비는 3,000원이었죠. 서울에서 사우나에 가면 6,000원인데, 온천물이 3,000원인데다 차비도 안 드니 경제적이죠. 뭐니까. 그러니 노인들이 세상이었습니다. 전철역에 노인들이 바글바글했고 온천탕에도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그곳에도 서울에서 내려온 노인들뿐이었습니다. 6,000원하는 감자탕을 먹으면서 어떤 할머니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 사

는데 온양온천까지 전철이 생겼다고 해서 한 번 와본 것이라 합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으로 딸 셋에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하며 근근이 살아 엄마에게 생활비 한 푼 안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딸 셋은 그럭저럭 저희 살기 바빠 안 도와주고, 막내딸이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하더군요. 아직 자기 명의의 집이 있어 방을 세놓아 사글세 50만 원 들어오는 것으로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요즘 둘째딸이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들 집에도 애를 봐주기 위해 5년간 함께 산 적이 있는데, 부부가 자꾸 싸워 이혼할까봐 겁이 난다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보니 도저히 같이 못 살겠고, 애가 어느 정도 크니까 시어머니가 필요 없다는 눈치여서 한국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살려면 입 다물고 병어리가 되어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하며, 아들은 결혼하면 며느리 것이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보고 아들이 며느리 편든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인데 제 어떤편을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또 제 경우엔 자식이라곤 외아들뿐이라 갈 곳도 없는데, 그 이들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면서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데 이혼하지 않고 둘이 사이좋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더군요.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직장에 다녀서 식모처럼 살림을 다 해주어서 힘들어 하는데,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앉아 받아먹으니 육신은 편하지 않느냐며 아무 말도 말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 말씀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지요. 이제는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 한 쪽 귀로 흘려버리고 조용히 죽어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모습이 바로 요즘 시어머니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



테이크아웃 사건

● 클_이나윤 | 대구시 동구 지묘동

마흔을 훌쩍 넘긴 대구 토박이 ‘아지매’입니다. 어제 모처럼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늘 동네 골목 안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다가 어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제 친구였지만 저도 나쁘지 않았습니니다.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 안 나가본 지도 꽤 여러 해 됐으니까요.

우리는 25년 전에 하이힐을 신고 자주 시내를 싸돌아 다녔는데 그때 그랬던 것처럼 한일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도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나갔지만 제 친구도 꽤 꾸미고 나왔더군요. 둘 다 진한 화장이라나... 잔주름이 화장으로 가려지나요, 어디. 내일 모레 오십인데 화장을 떡칠하고 나갔으니 모두들 우리만 험글거리는 것 같아 좀 민망했습니다.

“야, 우리 일단 분위기가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자.”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분위기 엄청 따집니다.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리는 들어가고 싶은 커피전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무 살쯤 되었을까, 생기발랄한 아가씨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주더군요.

“아이고, 20년 전에 우리 모습하고 우예 저리 똑같노, 그자?”

내 말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군요.

“10년만 젊었으면 저 아가씨하고 친구한다 내는.”

이런 착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아지매들’이 어떻게 신나게 살겠어요.

“맞다. 말이사 바른 말이지 10년만 돌려봐 보면 니나 내나 미스 코리아잖이지.”

우리는 우아하게 웃으며 둘 다 카푸치노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커피 맛이야 다 그제 그건데요. 카푸치노,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커피 주문을 받은 아가씨가 묻는 겁니다.

“테이크아웃 하시겠어요?”

제 친구가 그랬죠. “카푸치노 주세요?”

아가씨가 또 물네요. “테이크아웃 하실 거예요?”

요즘 저와 제 친구가 갱년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화를 잘 내거든요. 제 친구가 또 같은 소리를 두 번 이상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미랍니다.

“카푸치노 달라니까. 아가씨! 우린 카, 푸, 치, 노만 먹어요.”

그때 아가씨가 몹시 딱하다는 눈빛으로 그러더군요.

“가지고 가실 거냐고요.”

아! 그 순간 우리는 잠시 절망으로 쑥 빠지는 기분을 거의 동시에 느꼈습니다. 30여 년 전, 한 사건이 제 머릿속에 차르르 떠올랐어요.

여고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던 제 친구가 첫 월급을 탔다고 한턱낸다고 하더라고요.

“니, 돈가스 먹어봤나? 내가 큰 맘 먹고 사줄 테니까 나오나. 앞산 올라가는 길에 ‘하늘목마’라고 알제?”

그 ‘하늘목마’는 오가며 건물만 쳐다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돈가스요? 먹어본 적 없었습니다. 언제 그런 걸 먹어봤겠습니까. 우리 둘 다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요.

둘 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저녁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난생 처음 우리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현란한 조명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죠. 참으로 품위 있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가수 비 비슷하게 생긴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는데 “돈가스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하는 제 친구 음성이 그렇게 조용하고 부드럽다는 걸 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은 품은 좀 거만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긴 돈가스 값이 우리 수준으로는 꽤 비쌌거든요. 친구 월급이 1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돈가스 값은 4,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문을 받던 웨이터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밥으로 드릴까요? 빵으로 드릴까요?”

돈가스가 나오면 밥이나 빵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친구는 자기 음성이 너무 작았나보다 생각했던지 아까보다 좀 큰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돈가스 주세요!”

웨이터가 고개를 옆으로 까닥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빵으로 드릴까요?”

분명히 그 컷구멍에 들릴 만큼 말했기에 친구는 화가 났습니다. 같은 소리 두 번 하는 걸 싫어하는 성미니까요.

“돈가스 주이소!”

웨이터는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죠.

“손님은 뭘로 드릴까요?”

제가 온갖 품위와 우아함을 갖춘 목소리로 말했죠.

“돈가스 주세요!”

“밥으로 드릴까요?”

눈치 없는 웨이터. 끝내 제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

까. 주문한 대로 돈가스를 갖다 줄 것이지, 자꾸 빵을 시켜라 밥을 시켜라 하는 웨이터를 누가 좋아하냐고요.

“이렇게 비싼 집에 와서 왜 밥을 먹어요? 19년 동안 지겹게 먹었는데. 밥 싫어요.”

웨이터는 메뉴판을 착 접어 옆구리에 끼더니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빵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빵! 제 친구와 저는 동시에 웨이터 뒤통수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돈가스 달라니까요. 돈가스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할 것이지 와 자꾸 다른 걸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거야.”

가다가 다시 돌아온 웨이터가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 레스토랑 손님 모두에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요’ 하고 선전하는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아무튼 커피 주문을 받은 아가씨의 그 묘한,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눈빛이 마음에 걸려 우리는 황급히 카푸치노 커피를 받아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보니 ‘테이크아웃 됩니다’ 라고 쓴 글씨가 보이더군요. 제 친구는 그글자를 유심히 보더니, 얼굴이 벌개져 고함을 질렀습니다.

“발음이 왜 그 모양이야. 테이크아웃이라고 똑바로 말해야지. 나도 영어 줄 안다고. 갖고 나간다는 소리 아니야.”

잠시 후, 친구는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커피를 들고 나가서 먹을 거면 자판기 커피를 빼먹지 왜 커피전문점에 가느냐고요.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값도 비싸기만 하더군요. 자판기 커피도 꽤 맛있는데요.

아무튼 그날 우리 기분은 오래오래 씁쓸했고, 그래서 일찍 헤어져 집으로 왔습니다. 돈가스 사건보다 더 슬픈 게 테이크아웃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웬만하면 좋은 우리말 쓰면 안 될까요? ♥



딸들과 함께하는 새 삶

● 글_유득희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저는 시골 빈농에서 2남2녀 중 장남이자 종가의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하여 객지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2세 되는 1987년 여고를 졸업한 아이 엄마를 만나바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물불 안 가리고 이 여자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마음먹고 한 3, 4년 직장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4세 때 첫째딸을 낳고, 그 다음해에 둘째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없을 때는 둘이 굶어도 좋았지만 아이가 둘이나 되고 보니 생활비가 많이 들기에 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당시 직장은 직원 15명 정도의 지방 유선방송사였는데, 말이 유선방송이지 월급 2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밤에 생활하는 친구들이 다르게만 보였습니다. 매일 옷도 잘 입고, 돈도 잘 쓰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다가 그 친구들을 따라 직장도 그만두고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ですよ.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에 선배들 심부름을 해주면 용돈도 팍팍주고 머리 짧게 깎고 양복을 입고 업소에 가면 술값도 안 받고 도리어 용돈도 주기에 마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에는 그저 생활비만 주고 밖으로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가고, 또 10년이 지나 내 모습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사랑하는 아내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고, 사랑하는 두 딸들은 저를 아는 체도 하지 않더군요. 그때 제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제 선배였던 분이 일찌감치 그 생활을 접고 교회 집사가 되어 새 사람을 만들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를 찾았던 겁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듯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되새기며 주변의 도움으로 이렇게 잉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올해 43세, 강원도 원주에서 ‘황금잉어빵’을 굽고 있는 ‘잉어아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해 대학 2학년에 올라가는 큰아이와 대학에 입학하는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창 방황하던 시기에 저를 떠난 아내에 대한 미운 감정이 없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의 행복을 기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날, 18년 만에 사랑하는 다 큰 딸들에게 세배도 받았습니다.

비록 찬바람을 맞으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빵을 굽고 있지만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행복할 뿐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원망과 증오를 표출할 때도 있었지만 제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걱정이랄까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벌이로는 두 아이를 다 대학에 보내는 것이 참으로 벅찬 일이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갈 데 안 갈 데 다 가보고 세상의 바닥이라고 스스로 느꼈던 때가 있었고, 한 때 세상을 버리려고 할 때도 있었으니 죽을 각오로 살면 못할 것도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보렵니다.

‘사랑하는 성미·성애야! 너희들이 하고 싶다면 이 아빠가 몸이 부서지는 날까지 돕도록 할 테니 하고 싶다는 모델 일에 꼭 도전해보렴.’ ♥





금주를 실천하며

● 글_애청자

저는 경남의 어느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한때 ‘주태백’이라 불린 사람입니다. 올해 서른일곱 살이 된 소띠 총각인데, 어이없게도 혼자 사는 노총각이 알코올중독자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아마 새해가 시작되면서 금연이나 금주를 결심하신 분들이 많겠지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금주를 결심했고, 지금 실행중입니다. 설날 전에 술을 먹다 지쳐 제 발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찾아갔더니, 그곳 선생님이 저에게 절주가 아닌 단주를 명하시더라고요.

금주라는 말보다 어감이 훨씬 강한 단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꼭 술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한 이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선생님은 저에게 술을 끊지 않으면 결혼도 힘들 것이고, 결혼을 해서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기 힘들 것이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젊은 놈이 정말 무던히도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한 잔, 안 좋아도 한 잔, 흐린 날엔 흐린 하늘 때문에 한 잔, 비오는 날은 빗소리 들으면서 한 잔, 맑은 날엔 화창함이 좋아서 한 잔, 친구 만나면 또 반가워 한 잔... 하여간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술자리를 찾아다녔죠. 원래 술 핑계만큼 많은 핑계거리가 없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술을 마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저 술을 마셨다 하면 아우토판을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노브레이크로 쉼 없이 들이키는 폭주 습관이 문제지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낯선 곳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곳이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나 동료의 집이면 다행인데, 가끔 기상천외한 곳에서 잠을 깨곤 했거든요.

한 번은 변함없이 퇴근 후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지요. 그리고 역시나 그날도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온다간다 말도 없이 술그러니 일러났습니다. 친구들은 예사로 화장실 간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게 집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참새 떼 재잘거림 같은 여학생들의 말소리에 눈을 떠보니, 천장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어라! 천장이 와이리 낮노? 내 방 천장이 이렇게 낮지는 았을 깐데.’

아직 술이 덜 깬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역시 천장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보니 길지도 않은 팔이 다 펴지기도 전에 천장이 손에 닿더라고요. 서서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참새 떼의 재잘거림이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다가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틀이 없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다리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기 무슨 일이고? 내 집은 분명히 3층인데, 창밖에 저 많은 다리는 도대체 뭐꼬?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기가, 귀신이 흘린 기가?’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봐도 몸통은 보이지도 않고 다리만 눈앞에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다시 눈을 감고 정신을 좀 가다듬었습니다. 창가에 보이는 다리들 사이로 얼핏 낮익은 간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보았던 간판이죠.



그러자 마치 안개가 걷히듯 사물이 뚜렷하게 분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 눈에 보이던 수많은 다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상황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대체 어디 누워 있었냐고요? 저희 집에 오는 길에 여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고 담장 끝 모퉁이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하나 있고, 그 슈퍼마켓 앞에는 평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그 평상 밑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이없게도 평상 밑 한쪽 구석에 신발까지 가지런히 벗어놓고서 말입니다.

평상 밑이니가 천장이 낮은 건 당연하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던 창가의 그 수많은 다리들은 바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여고생들의 다리였던 것이었죠. 등교시간이 아닌 수많은 다리가 자연히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밖에요. 참새 떼의 재잘거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고생들의 수다와 웃음소리

였고요.

그때부터는 술 취했을 때보다 더 정신이 멍해져 행여 누가 볼세라 반대편으로 돌아누워 몸을 잔뜩 움츠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파묻은 채로 여학생들의 재잘거림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않고 누워있었죠.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놈의 술을 내가 다시는 마시나뵈라. 내가 다시 술 마시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멍멍이다. 멍멍이.’

혼자 온갖 자책을 하다가 여학생들의 등교가 끝났을 때, 후다닥 평상 밑을 빠져나와 집으로 줄행랑을 쳤죠. 그때 누가 보길라도 했다면 바로 신고가 들어갔겠죠? 여학생들 다리를 훑쳐보려고 평상 밑으로 들어간 정신이상자라고.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화입니다. 하지만 금주 결심은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금주 결심은 아침에 눈뜨면 했다가 저녁에 해지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또 한 번 어이없는 곳에서 잠이 깬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와 잠을 잤는데, 얼핏 물소리 같은 것이 자꾸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소리라는 것이 집에서 사용하는 수도물 소리와는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마치 산속 어느 골짜기의 맑은 물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은 조금씩 드는데 몸은 아직 술에 절어 눈조차 떠지질 않는데, 크지도 않은 맑은 물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또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등짝이며 뒤통수까지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물소리가 들릴 만한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제는 아예 천장이 없이 밤하늘 별들이 훤히 보이더군요. 지난번 평상 밑이 답답했던지 이번에는 개울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개울에 발을 담그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개울물에 담그고 발을 밖으로 걸쳐놓

은 채 말입니다. 개울바닥이 평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었는지 기가 찰뿐이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제 발 옆에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머리를 개울물에 대고 누워있으니 물소리가 계속 들렸던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인건 작년에 이 지역에 가뭄이 심해 개울물이 바닥으로 졸졸졸 흘러 익사는 면했다는 것이지요.

또 어느 날은 눈을 떠보니 파출소더라고요. 무슨 사고라도 저질렀나 싶어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여쭙봤더니 화를 내면서 그러시더군요.

“이 사람! 술을 그렇게 마시고 고속도로 갓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딴노? 당신 때문에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다 아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데이.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술 마시면 곱게 집에 들어가거래이.”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완전히 필름이 끊겨 전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로 말입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자고도 큰 사고 한번 안 난 건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시한폭탄 같은 사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제 자신이 싫고 무서워 스스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찾았던 것이지요. 상담하는 선생님이 젊은 분이 혼자 스스로 오는 경우가 무척 드문데 찾아온 것을 보니 금주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줘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상담중에 많이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력을 물었는데 선친께서 술을 달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새 제 자신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본 것이지요. 선생님 말씀이 가족 중에 알코올중독자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서 알코올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술직히 남들 평생 마실 술을 저는 젊은 나이에 다 마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철없던 학생시절부터 피우던 담배를 끊은 지도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술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Letter 11

알코올중독 남편

● 글_애청자

○ 늘도 난 남편을 알코올중독으로 6번째 입원시킨 부족함을 자책하며 새벽 4시에 퇴근해 아무도 없는 자전거도로를 달려 집으로 옵니다. 야간업소 주방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

한때는 낮에도 식당에서 점심배달을 하고, 밤에는 주방에서 12시간씩 서서 근무했죠. 새벽에 자전거로 집에 오면 거의 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땐 피곤하고 졸려 잠깐 눈이 감기는 바람에 어디에 부딪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새벽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무섭기도 하지만 택시비가 만만치 않아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술독에 빠져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거기다가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칼로 위협하기도 하고, 불을 지른다는 말을 예사로 하여 식구들을 괴롭혀 생명에 위협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다 못해 어떻게든 가족들은 살아야겠기에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 남편을 입원시켰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반성하고 우우치는 것 같고, 식구들도 마음 아파해 퇴원을 시키면 며칠을 못 넘기고 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결혼생활 30년, 딸만 둘을 낳아 길렀습니다. 어렵게 마음고생 시켜가며 키운 딸이 시집갈 때도 결혼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술에 취해 버티는 남편을 오늘날만 아빠 노릇하라고 어르고 달래 억지로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에 모든 스트레스

를 마음에 품고 주위의 모든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내 성적인 성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병원에 입원시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를 본인이 알면 그러지 않겠지요. 어떻게 하면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에서 식구들과 맘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을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무서워 심장병까지 생겼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병원에 있고, 해답을 얻고자 용기를 내 편지를 씁니다. 작은 딸도 아빠에게 눈물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렇게 아빠를 보내고 나서 우리는 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정말 너무한다, 아빠.

다시는 입원하지 않기로,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그렇게 굳게 약속해 놓고 어김없이 그 약속을 아빠 스스로가 깨버리시는구나.

우리 식구들, 그날도 가까운 외곽으로 나들이 가기로 했으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형부한테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나 이사 들어오려고 형부랑 내 남자친구랑 집을 옮기는데 베란다·침대 옆·소파 밑·텔레비전 뒤... 곳곳에서 소주병이 나오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알코올중독자의 딸하고 어느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빠는 그렇게 입원시키는 우리가 원망스럽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렇게 가정폭력만 휘두르고 술에 빠져 딸들 앞길까지 망쳐버리는 아빠가 더 원망스러워요.

우리는 아빠를 입원시키고 맘 편히 잘 먹고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나 언니나 나나 모두 얼마나 속상하다고요. 평범한 다른 집들이 정말 부럽다고요.

왜 그렇게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식구들까지 힘들게 하세요. 왜?



우리는 아빠를 포기하고 산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아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평범한, 다른 가정의 가장처럼 그냥 평범한 아빠가 돼주길 바라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빠가 친구들 만나 기분 좋게 술 한 잔씩 하고 식구들 하고도 그렇게 마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아빠는 그걸 넘어서 낮이고 밤이고 집에서 혼자 마시고 엄마한테 폭력 쓰고, 밥상 엎어버리고, 볼 지른다 그러고, 다 죽인다 그러니 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아빠랑 같이 살 수가 있겠냐고요.

이제 아빠도 할아버지예요. 손자에게 부끄럽고 술 냄새만 나는 할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진짜 아빠에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아빠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하신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그만해요.

엄마 성격이 원래 다정하지 못한 것도 지금껏 적지 않은 나이에도 한 톨 벌 어보겠다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거니 남자인 아빠가 이해하고 다독여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같았으면 아빠같이 나쁜 남편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살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 입원시키고 제일 많이 운 사람도 엄마고, 제일 가슴 아파했던 사람도 엄마야.

제발 불쌍한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엔 그 알코올중독자 딱지 좀 떼고 나오세요. 아빠, 이번에도 또 약속 어기고 실망시키면 진짜 강제 이혼시키고 죽을 때까지 아빠 안 보고 살 거야.

아빠 혼자 술만 먹다 골방에서 돌아가셔도 모른 척할 거야 난. 정말 매번 하는 실망이지만 아빠란 사람도 약속을 지킬 줄 안다는 걸 이번만큼은 보여주세요. 제발!

그래도 아빠한테는 우리들밖에 없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빠밖에 없어요. 우리도 잘 살아봐요. 아무리 미운 소리를 해도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빠! 이번엔 꼭 병 다 나아서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제일 사랑해! ♥



한 명 남은 이발고객

● 글_박순복 | 울산시 동구 전하동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여보, 달링! 올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이발 좀 해주세요.’

다섯 개의 하트를 동반한 짧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다. 바로 답장을 보냈다.

‘싫어, 싫어. 아버지 생각나서 못 깎아준다.’

남편은 내가 퇴근하기가 무섭게 이발도구를 챙기고 이발 준비를 다 해놓고 나를 부른다. 복지회관에서 6개월 배운 실력으로 20년 가까이 남편이랑 아버지 단 두 명의 고객을 위해 이발을 해왔다.

두 명의 남자 헤어스타일은 판이하게 다르다. 남편은 대머리, 아버지는 평범한 스타일. 오늘도 난 이발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가위랑 빗에서 아직도 아버지 냄새가 풍긴다. 언제까지나 내 고객일 것 같던 사랑하는 내 아버지인 결국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구나. 20년 가까이 한 푼의 이발비도 받지 못했는데...”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격해지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마지막에 턱없이 빠져나온 몇 가닥의 눈썹을 깔끔히 정리해주는 내 이발이 동네 이발관에서 하는 이발과의 차이점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걸 매우 만족해 하셨다.

아버지는 평생 이발값 한 푼 주지 않았지만 쌀이며 고추며 온갖 잡곡들을 풍성하게 이 자식 저 자식에게 베풀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5년 가까이 홀로 계시



면서 외로움을 술과 담배로 풀다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

지난해 이맘 때, 후두암 관정을 받고 딱 1년 만에 예년보다 더 많은 곡식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아버지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 한 번의 통증도 없이 병원에 입원한 지 18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지난해 11월에 마지막 생신을 차려드릴 때, 미역국 맛나게 드시고 행복해 하던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가실 줄 알았다면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로 가슴이 아려온다.

그때도 난 아버지 이발을 해드렸다. 눈썹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렸다. 아버지 염을 할 때 유난히 아버지 머리카락에 내 시선이 집중됐다. 아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통곡했다.

“아버지! 언제 또 아버지 머리를 한번 깎아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주신 쌀에 검은 콩 얹어 밥을 하고, 깨 볶아 음식에 넣고, 장 담가 된장국 끓여 먹고, 고추 곱게 뺨아 김장을 했다. 어디 하나 아버지 흔적이 없는 곳이 없다. 남편은 날 위로한답시고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5,000원은 이발비고, 5,000원은 팁이란다. 다음에 더 많이 주겠다나!

한 명 남은 내 고객이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길 간절히 빌어본다. ♥

단독주택으로 이사해보니

◎그림_심경희

※ 이 만화는 최영순 씨(서울시 강남구 삼성동)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집이다~



박진희 씨 부모님은 경기도 고양시 외곽에서 고물상을 하세요.

빨래방·교복집·신문보급소·식당·슈퍼마켓... 많은 일을 거쳐 10년 전부터 다시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
박순호·유미화 부부

고물은 줄었지만 그래도 봄은 오지요



우리 대보름 풍속에는 더위팔기가 있습니다. 그날 스물여덟 살 박진희 씨는 더위를 팔지 않고 더위를 샀습니다. 기겁고도 눈물겨운 마음으로 더위를 샀습니다.

“아니, 더위를 팔아야지 왜 더위를 사? 안 그래도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은 갈수록 더워지는데 더위를 사기까지 하면 여름은 어찌 나려고?”

이렇게 묻고 싶으시지요? 진희 씨는 부모님 더위를 사고 싶어 마음으로 더위를 샀습니다.

“엄마, 엄마 더위 내가 살 테니까 올 여름 덥지 않게 나세요. 아빠, 아빠 더위 내가 살게요. 나한테 팔아요.”

그 편지, 여성시대 방송시간에 들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아시겠지만 박진희 씨 부모님은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고물상을 하세요.

여성시대가 박진희 씨 부모님을 뵈러 경기도 고양시로 갔습니다. 고양시 외곽 박순호·유미화 씨 부부가 일하는 고물상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네모의 철판이 보입니다. 그게 저울이래요. 트럭만큼 큰 저울. 고물을 싣고 온 트럭이 그 철판 위에 서면, 저절로 무게가 달아지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박순호 씨 부부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고물상을 했지만 그 일이 힘들어 돈을 벌자 다른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래방·교복집·신문보급소·식당·슈퍼마켓... 많은 일을 거쳐 10년 전에 다시 고물상을 하신 겁니다.

“30년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한 거죠. 힘들어 그만 두었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아는 일이나까.”

진희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집이 넘어가고, 빚만 2억 원이 넘었다
고 합니다. 잠시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했고, 그러다가 달동네에 월세 20만 원
짜리 집을 얻어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여러 집이 함께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
연탄보일러... 집에 가끔 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물상 일을 하셨습니다.

고물상은 손끝에서 동전이 나오는 일이라고 표현하시네요. 하나하나 손으
로 뒤적여 분류를 해야만 돈이 되니까요. 박순호 씨네 고물상에서는 수지류를
취급합니다. 그러니 석불이에 플라스틱이 결합되어 있다면 플라스틱만 떼어
내야 합니다. 여름에는 땀벌에 피부가 새까맣게 다 그을리도록 일을 하고, 겨울
이면 허벅지방에서 너무 추워 손발이 다 얼니다. 온몸이 아파 밤에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손은 나무껍데기
처럼 굳어진 부모님이 안쓰러
워 진희 씨는 여성시대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세상에서
엄마·아빠를 가장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
신 덕분에 이제 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도시가스에 따뜻한 물
나오는 화장실이 있는 집도 장
만했습니다.

“집사람요? 지독하게 알뜰해
요. 표현은 못 하지만 아내가 저
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마음
이 좋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고맙죠.”

두 분은 슬하에 남매를 두었
습니다. 하루종일 일하는 부모
님 밑에서 자란 남매는 어려서부터 의젓하고 자기 앞가림을 한 영특하고 순한
자녀입니다. 어려서부터 깨워줄 수도 없었는데, 스스로 일어나 아침 차려먹고
시간 맞춰 학교에 다녔습니다. 공부도 착실히 잘해 지금은 사회인이 되어 일하
는데, 휴일에는 지금도 부모님 일을 돕습니다.

진희 씨가 어렸을 때는 일 때문에 바쁜 부모님이 서운했대요. ‘우리 아빠도
양복 입고 회사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우리 엄마도 비 오는 날 우
산 들고 학교 앞으로 나 데리러 오시면 좋겠다.’ 그 생각도 했대요. 날이 춥거나



● “고물상은 말하자면 선별소인 셈입니다. 여기서
종류별로 선별해 분쇄공장으로 보내지니까요. 이 일은 쓰
레기를 가져다가 재활용하게 하는 일입니다.”

비가 와서 아빠가 “학교에 내가 데려다주마” 하시고는 트럭에 태워주실 때, 어린 마음에 창피했대요. 횡단보도 앞에서 트럭이 멈출 때, 길 앞으로 친구들이 건너가는 게 보이면 진희 소녀는 신발 끈을 묶는 척 몸을 숙여 친구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 까, 내가 철이 없었네’ 싶대요.

진희 씨만 그런 게 아니지요. 자녀인 우리 모두는 어느만큼은 부모님을 부끄러워한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더 알게 된 뒤에는 그런 부모님을 더 안쓰럽게 바라보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오는 고물의 분량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가격도 더 떨어져 이래저래 수입은 바닥입니다. 결국 같이 일하던 사람을 둘이나 내보내고, 이제는 부부와 다른 한 분, 셋이 일합니다. 고물상은 경기가 좋아야 잘 됩니다. 새 제품을 사면서 쓰던 제품을 버린다거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플라스틱 수지가 돈이 되는데, 다들 생활이 어렵고, 건축경기도 쪼그렁 얼어붙고, 자영업시장도 꽉 막혀 있으니 고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플라스틱 통·음료수 통·간장통 온갖 수지제품 고물을 차에 싣고 와 박순호 씨

네 고물상에 물건을 넘기는 분들이 그러신대요. 전에는 하루에 10

만 원 벌이를 했다면 이제는 2만 원

벌이도 힘들다고. 박순호 씨

부부도 고개를 끄덕

이십니다.

여름에는 새

벽 여섯 시면

일을 시작합니

다. 그리고 밤 열 시에



들어가지요. 겨울에도 아침 여덟 시면 일을 시작해요. 요즘은 좀 일찍 들어가 저녁 일곱 시에 퇴근입니다.

“고물상은 말하자면 선별소인 셈입니다. 여기서 종류별로 선별해 분쇄공장으로 보내지니까요. 이 일은 쓰레기를 가져다가 재활용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필요한 일이지요. 이런 고물상은 땅을 빌려하는데, 허락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라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을 사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죄도 안 지었는데, 구청직원만 와도 가슴이 철렁해요. 고물상이 우리 산업 전체 구조 속에서 꼭 필요한 만큼 행정상의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설치한 라디오에서 여성시대가 찌렁찌렁 울립니다. 이제 고물이 놓인 자리에도 파랗게 봄풀이 돋아나겠지요. 고물이 줄고 수입도 줄고 우리 얼굴에 웃음도 줄었지만 곧 봄이니 기지개를 켜야겠지요. 잠시 허리를 펴고 곧 아지랑이가 피어날 언덕 쪽을 보며 박순호 씨 부부가 잠시 웃으셨습니다. 멀리서 오래 기다린 봄이 오고 있습니다. ♥

건강하고 아름다운 침실을 위한 최고의 선택

기업은행 회기역지점 고객
(주)이브자리 고춘홍 CEO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이 더욱 만족하고
기뻐할지, 고객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
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 (주)이브자리 고춘홍 CEO.



하루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드는 시간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고 건강까지 고려한 기능성 침구를 찾았다면 수면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안락할 터. 수년간 국내 침구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주)이브자리는 질 좋은 제품으로 고된 일과에 지친 이들에게 포근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를 제공한다.

침구 전문 유통기업 (주)이브자리는 창업 33년을 맞은 탄실한 중견기업으로, 뛰어난 품질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침구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디자인연구소와 수면환경연구소를 갖추고 끊임없는 상품개발에 매진해 눈길을 끈다. 그 결과 침구회사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006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로하스 인증을 받았고, 극세사의 정전기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N-BIO라는 물질을 개발하는 등 수많은 성과를 거뒀다. (주)이브자리의 고춘홍 CEO는 “디자인은 물론 소재와 기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까지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들께서 ‘사용해보니 제품이 역시 다르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주)이브자리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무척 짧기로 유명하다. 출시한 상품의 90% 이상은 봄/여름, 가을/겨울 시즌이 바뀌면서 버려진다. 아무리 반응이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좀 더 나은 디자인과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춘홍 CEO는 “향후 제품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더욱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질에 대한



(주)이브자리는 창업 33년을 맞은 탄실한 중견기업으로, 뛰어난 품질과 차별화된 디자인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만족도가 높다 보니 제품의 재구매율 또한 80%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러한 (주)이브자리의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는 대외적인 성과로 이어져 지난해 ‘여성소비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 중 단 2개 업체에만 주어지는 소비자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은 불공정 행위가 없고 우수한 소비자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

고춘홍 CEO가 침구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1976년이다. 건축공학과 출신인 그가 침구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예술에 가까운 작업과 장인정신, 동료들의 성실하고 온순한 성향 등이 자신의 정서와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3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없었을 리 만무하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묻는 말에 그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준 덕분”이라며 직원들과 협력업체 파트너, 대리점주들에게 그 공을 돌렸다.

직원 개개인을 창업 동지로 생각하는 고춘홍 CEO의 남다른 직원 사랑은 (주)이브자리의 기업문화로 이어진다. (주)이브자리는 16년 전부터 산행면접이라는 독특한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체력과 강인한 도전정신, 협업능력, 타인을 위한 배려와 봉사정신 등을 기를 수 있다. 이



기업은행 회기역지점의 변문수 지행장(왼쪽)은 고춘홍 CEO가 가족적이면서도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나무를 심고 사랑을 심는 (주)이브자리 가족들.



(주)이브자리는 디자인은 물론 소재와 기능 등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과정을 거쳐 채용된 직원들은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다양한 취미와 운동을 즐기며 체력을 증진하고 자신을 성장시킨다. 그 덕분일까. 오는 3월에 열리는 동아국제마라톤 대회에 직원의 40%가 넘는 인원인 107명이 풀코스에 도전장을 내밀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고춘홍 CEO 역시 철인 3종 경기 도전을 목표로 현재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기업은행 회기역지점의 변문수 지행장은 “평소 고춘홍 CEO께서 직원들에게 프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많이 애쓰시는 것 같다”며, “특히 가족적이면서도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 분위기가 IBK기업은행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개인적으로도 더욱 친숙함을 느낀다”면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주)이브자리는 국내시장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침실과 건강한 생활 창조’라는 미션과 ‘세계 TOP 침구 전문 유통회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7호점과 미국 2호점을 개설하여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의 33%에 이르는 인력을 대거 채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침구종합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침실 전문 멀티숍 ‘코디센’을 오픈, 전문 코디네이터의 침실 인테리어 제안은 물론 수면과학체험실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수면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향후 (주)브자리는 코디센을 더욱 확장하여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김영세 씨가 이끄는 ‘이노디자인’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침장 브랜드를 론칭, 더욱 새롭고 젊은 감각의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2015년 매출 1조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직원들과 함께 세계 1위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고객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이 더욱 만족하고 기뻐할지, 고객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실은 더 이상 잠만 자는 장소가 아니다. 침실은 건강한 삶이 시작되는 곳이고, 집안의 분위기를 이끄는 공간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침실을 창조하기 위한 (주)브자리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

● 글_오인숙(자유기고가) | 사진_주병수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고춘홍 CEO의 성공 노하우

- ✦ **정직** : 침구는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기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속까지도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상품을 제공한다.
- ✦ **끊임없는 도전** : 제품개발을 위해 R&D에 적극 투자한다. 디자인연구소와 수면환경연구소 등을 통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고객에게 질 좋은 침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 **봉사와 헌신의 자세** : 삼수정신, 차이존중, 약속이행의 기업문화를 통해 고객사랑을 실천한다. 삼수정신은 선수(先授; 먼저 준다) · 충수(充授; 충분히 준다) · 향수(恒授; 항상 준다)를 뜻하며, 약속이행에는 고객의 클레임에 대한 전액 변상 및 평생 A/S 등이 포함된다.

소액 자금이 급히 필요하십니까?

IBK 기업은행 거래고객을 위한
가은캐피탈의 금리/수수료 우대 「개인신용대출」

아이(I)론 Family

대출금리 최저 年 9.9% /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세계가 인정한 집중력 학습기기 전문기업

(주)지오엠씨

(주)지오엠씨(대표 임영현)는 대한민국 학습기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집중력 학습기기인 '엠씨스퀘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제



품은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한 제품이다.

'엠씨스퀘어 스테디'로 출발한 엠씨스퀘어는 슬림한 디자인에 mp3·보이스 레코더·이미지 뷰어 등의 부가기능이 추가된 '엠씨스퀘어 X1', KTF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출시한 블루투스형 '엠씨스퀘어 BT', 휴대가 간편해진 목걸이 일체형 '엠씨스퀘어 Active', 감성 조명, 아로마 테라피 기능이 보강된 집중력 스탠드 '엠씨스퀘어 Lux'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18년 동안 130만 명의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엠씨스퀘어가 타 유사 학습기기와 차별되는 점은 엠씨스퀘어의 빛과 소리가 뇌파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엠씨스퀘어

는 빛과 소리의 동조화 현상을 유도하여 활발한 의식활동으로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베타파를 한곳에 집중할 수 있는 알파파나 창의력이 발휘되는 세타파로 유도하여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불안하거나 초조함·긴장감을 완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두뇌 휴식, 숙면 유도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엠씨스퀘어의 효능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자료는 물론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뇌 과학 연구소인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의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고, 최고 권위의 과학 논문지인 <International Journal Learning Technology>에 수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엠씨스퀘어는 세계 경제의 중심도시인 뉴욕에 소재한 백화점에 'Relax MC'로 단독입점, 절찬리 판매하고 있고 아시아·유럽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집중력 향상기기로 자리매김하였다.

● 기업은행 성수동지점 거래기업

● (주)지오엠씨(대표 임영현)

☎ 전화문의 : 02-586-6871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시대
꾸러미

● 내지 일러스트 박지현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를 기르는 이야기 <출산에서 교실까지>, 남성들의 땀과 인내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사랑의 계절>을 함께 만나보세요. 매주 월요일 <출산에서 교실까지>, 목요일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토요일 <사랑의 계절>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꾸러미 하나
출산에서 교실까지
엄마의 파란만장 출산기
황지수 님

● 꾸러미 둘
장용의 단결충
난로용 기름 마셔 보았나요?
권혁수 님

● 꾸러미 셋
사랑의 계절
사랑은 자전거를 타고
김선철 님



엄마의 파란만장 출산기



● 글_황지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우리 아버지는 삼대독자로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습니다. 집안에 아들이 귀하다보니 할머니는 갓 시집온 엄마의 커다란 엉덩이를 보고 무척 흡족해 하셨답니다.

“아가,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저 아들 하나만 낳으면 된다. 녀들도 다 낳는 아들을 왜 못 낳았나잉? 궁께 맴 편히 먹고 아들 하나만 낳아라잉?”

할머니의 바람대로 엄마는 바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산달임에도 발에 나가 일해야 했던 엄마는 갑자기 진통이 오는 바람에 급히 집으로 돌아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첫아이를 잃은 슬픔이 잊힐 만할 때쯤 엄마는 다시 임신을 했고, 온 집안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딸인 저를 출산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낳고도 그다지 서운해 하지 않았습니다. 첫딸을 잃고 난 다음 얻은 자식이라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제가 돌을 갓 넘겼을 때쯤 엄마는 또 임신을 했고, 또 딸을 낳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집안 어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꼭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엄마는 또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엄마의 부담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낳은 세 번째 아이도 딸.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는 또 딸인 걸 확인하고는

엄마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 마디도 없이 집 근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치셨습니다.

“왜 그러요? 왜? 왜? 왜 나는 딸만 주시냐고요? 남들은 아들만 서넛, 열인 집도 있더라? 왜? 왜 나는 딸만 주시냐고요? 내가 뭐 잘못을 했간디요? 내가 뭐 죽을 잘못을 했간디요? 왜? 나는 딸을 내리 주시냐고요? 예?”

그렇게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화풀이를 한 아버지는 다시 터벅터벅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네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얼라났어? 아, 뭐났어?” 하는 소리가 겁이 나서 말입니다.

엄마는 다시 임신을 했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열 달을 보낸 어느 날 새벽, 그때 저는 할머니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고함소리에 잠을 깬지요.

“엄니, 고추요. 고추! 고추랑께요. 엄니, 빨리 나와봐요. 고추랑께요.”

입이 귀에 걸린 아버지는 그 새벽에 할머니를 업고 춤을 추며 마당을 돌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에 엄마도 주르르 눈물을 흘리셨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대문에 금줄을 쳤습니다. 큼지막한 빨간 고추를 새끼줄에 끼워 넣으셨지요. 그날 아버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일부러 동네에 나가 여기저기 구웃거리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애기, 낳았어?” 하고 물어보면 “아들 낳았소. 월매나 잘생겼는지. 글고 고추가 월매나 실한지 몰라요.” 하고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돌을 앞두자, 엄마는 정말 이제야 할 일을 한 것 같으며 안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다시 엄마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씀하셨대요.

“저기 말여, 우리 한 명만 더 낳아보면 위떡?”

“아이고, 뭔소리여요? 뭐 아를 또 낳아? 아이고, 인자 애기 낳는 것도 질리네. 나도.”

“이 사람아! 내 말 좀 들어보소. 글고 이왕 있는 거 아들 하나보다 둘이면 뽀도 더 든든하고 더 좋잖여. 내가 생각해볼께 물꼬가 인자 터진 것 같여. 물꼬가 한번 터졌으께 인자 앞으로는 줄줄이 아들만 나올꺼라이 말이지. 안그랴?”

“아이고, 냅뉘유. 일없슈! 아그 한 명 날라문 월매나 힘든 줄 알아유? 별이 몇 번 보여야 나온당게 그래쥬네. 당신은 알도 못 허면서 무조건 나라고만 헛썰!”

“아, 뭔소리여? 많이 나봐서 그런가 저번에 아덜 날 때 봉께롱 아 된똥 누듯 이 인상 몇 번 쓰더니만 바로 낳더만 그려!”

아들의 물꼬가 터졌으니 한 번만 더 낳아보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엄미는 다시 또 아이를 가지셨고, 그 결과 아주 예쁜 딸인 우리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막내가 태어난 지도 벌써 25년이나 흘렀네요. 그때는 그렇게도 아들을 소원하셨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딸 차별 없이 키우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애교덩어리 막내여동생을 가장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우리 아버지. 막내가 “아빠, 시원해?”라고 콧소리를 내며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드리면 아버지는 말씀하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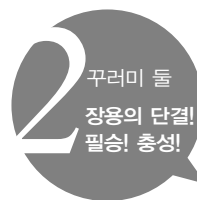
“아이고, 요놈을 내가 안 낳았으면 위절 뻘헛어. 요 이쁜것!”

1남4녀를 두신 우리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여 지났으께 허는 소린디. 만약에 우리가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한 명이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끼끌로 딸이 하나고 아들이 넷이면 위절 뻘헛어. 안그랴? 하이고 생각만 허도 끔찍허네. 안그랴 당신?”

“아이고, 참말여. 궁께 끔찍허네. 끔찍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



난로용 기름마셔 보았나요?



● 글_권혁수 | 울산시 남구 여천동

저는 병 355기 출신입니다. 군기가 칼 같고, 고생은 밥 먹듯이 한다는 46특기생 출신입니다. 김해 공군부대에서 멋지게 근무한 젠틀맨 중의 젠틀맨이지요.

1985년 추운 12월 어느 날입니다. 간이비닐로 만든 외부 사무실에서 무장중대의 아침 조회를 했습니다. 우리 사병들은 아침 일찍부터 외부 사무실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아야 했는데, 무척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못 쓰는 비행기 기름 탱크가 높은 곳에 있어 그 기름을 작은 통에 옮겨 담아 외부 사무실 난로에 부어 난방용으로 써야 했거든요. 저는 그 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쩔겠습니까. 저는 장교나 하사관이 아닌 사병이고, 사병 중에서도 졸병인 것으요.

기름 탱크에서 작은 통으로 기름을 옮기기 위해서는 입 크기만한 고무호스를 탱크에 넣고 입으로 쪽 빨아 기름이 위로 올라오면 입에 들어오기 직전 재빨리 작은 통에 고무호스를 넣어야 합니다. 기름을 먹지 않으려면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아주 추웠습니다. 저는 기름 탱크에서 작은 통으로 기름을 옮기려 고무호스를 탱크에 넣었습니다. 제가 하는 걸 고참병들과 하사관 몇 명이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배불뚝이 박 상사가 눈자위를 두어 번 돌리고 배를 불룩불룩 실룩실룩하며 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비켜봐.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다.”

“아이고, 아닙니다. 상사님! 저희들이...”

“시끄, 비켜.”

배불뚝이 박 상사는 굵은 고무호스를 두툼한 입에 물었습니다. 성질이 괴팍하고 사나운 박 상사가 갑자기 선심을 쓰는 게 이상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무호스는 검은 색이라 기름이 내려오는 게 보이지 않아 기름이 입 가까이 왔다면 감각적으로 작은 통 입구에 가져다 대야 합니다. 그런데 이빨 싸! 그 잘난 우락부락 박 상사는 무슨 맛난 것을 드시려 했는지 아니면 힘이 좋아서인지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래 빨아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물을 뿌리듯 박 상사의 입에서 분수같이 기름이 분사되었습니다. 고무호스에서는 기름이 줄줄 흐르고, 순간 뒤로 물러났던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박수를 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이고, 상사님. 쾌안십니까. 우짜능고. 아이고, 옷 다 젖었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군요.

오전 8시 15분. 준위의 아침조화가 끝나도 박 상사는 모습을 안 보이더군요. 일장훈시를 하는 준위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의 기름사건이 생각나 다들 킁킁 눈으로 웃음을 주고받으며 채재를 불렀습니다. 윗분들은 한 마디씩 하고 사무실로 곧장 가버렸습니다. 그때 외부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박 상사가 컵 두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름을 마셔 입안이 텅텅해 커피나 마시면서 대중 이야기를 하려는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지요.

“이 시키들, 상사가 일 당했는데 웃어. 어 거기 그레 우스워, 이 시키들. 니들도 묵어봐야 돼.”

그리고는 오른손에 든 컵을 왼손에 든 컵에 조금 따랐습니다. 아! 그것은



조금 전에 분수같이 뿜어져 나오던 난로용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을 조금씩 나눠 하사, 병장, 상병... 차례대로 다 마시는 거다. 알았나?”

설마, 설마하며 머뭇거리던 하사 한 명이 땅바닥에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습니다. 박 상사에게 두어 방 차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입에 컵을 댄다. 인상을 쓴다. 마시자마자 ‘우웬’ 하며 고무줄처럼 밖으로 나가구토를 한다. 실시”

말 그대로 이비귀환이었습시다. 속은 니글거리고, 눈물과 콧물 범벅이었습시다. 좀 전의 상황과는 상전벽해라고나 할까요. 진짜 상상초월이었습시다.

‘기름아! 빨리 떨어져라.’

기도도 소용없었습시다. 잠시 후, 죄 없고 힘없는 일병인 내게까지 기름 컵이 전달되었습시다. 인원수에 나누기와 곱하기를 정확히 해 분배를 한 모양입니다. 컵을 받아들고 고개를 들어 슬픈 표정으로 박 상사를 쳐다보니, 눈이 부리부리한 게 잡아죽일 정도로 분노에 찬 눈동자였습시다. 머뭇머뭇하다가 는 주먹이 날아올 것만 같았습시다.

‘입 가까이 컵을 댄다. 아! 니글거리는 기름 냄새. 원 샷. 아! 세상에 이런 맛은 없다. 니글니글, 오토매틱, 우웬이다.’

충출된 눈, 계속되는 구토... 아! 사무실 분위기는 공포분위기 저리 가라였습시다. 어쩌면 지옥이 이럴까 싶었습시다. 막내 이병까지 친절하게 한 잔씩 먹인 후, 박 상사는 울분이 좀 풀렸는지 의기양양하게 퇴실했습시다.

다시 찬바람이 부는 밖에 집합했습시다. 또 한 대, 두 대씩 언어터지기 시작했습시다. 뭘 잘못했고, 왜 맞는지, 왜 패는지도 모른 채 다들 같은 기분으로 차디찬 겨울 하루를 보냈습시다. 입대동기랑 세면과 양치질을 여러 번 한 후, 연거푸 담배를 피웠습시다.

“조디 단디 셋째래이. 안 그라도 난로기름 때문에 담배 태우다가 다 탄데이. ㅎㅎㅎ.”

강산이 몇 번이나 지났지만 잊히지 않는 아픈 기억이자 추억입니다. 박 상사! 원망 안 합니다. 지금은 전역했을 텐데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다들 기름으로 위장청소를 싹 해서인지 위장병 안 걸리고 속 하나만큼은 참 좋다는 걸 느낍니다. 다 박 상사 덕분인가요. ♥



사랑은 자전거를 타고



● 글_김선철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집안환경이 너무 어려워 진학을 포기했습시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내던 어느 날, 친구와 여의도로 자전거를 타러 갔습시다. 전 자전거를 타고 신문배달을 하다 보니 두 손을 놓고 탈 만큼 잘 탔습시다. 그런데 한 아가씨가 처음 자전거를 타는지 넘어질 듯 비틀비틀 다가오더니 그만 저와 부딪치고 말았습시다. 저는 얼른 자전거에서 내려 넘어진 아가씨를 부축해주려 했습시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자전거의 날카로운 부위에 청바지가 찢어졌고, 아가씨는 일어나지도 못했습시다. 저는 친구를 불러 점퍼를 벗으라고 해 아가씨에게 가리라고 했습시다.

아가씨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맙다”고 머리를 숙인 후 점퍼를 허리에 둘러 찢어진 바지를 가렸습시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연이 시작되었습시다.

점퍼를 돌려받기 위해 다음 주 일요일 낮 12시에 여의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시다. 친구는 점퍼를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지만 저는 “꼭 나올 아가씨 같으니 걱정마라”고 친구를 안심시켰습시다. 저는 일주일을 설레는 마음 반 걱정 반으로 보냈습시다.

일주일 후, 약속장소에 나갔습시다. 그런데 낮 12시가 지나고 4시가 가까워 오는데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시다.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쇼핑백을 들고 오는 아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걸어오는 모습에 심장이 미구 쿵 쿵거렸습시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미안해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사고가 나 차가 꼭 막혀서 늦었어요.”

“아! 그랬군요. 우리는 못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는 물론 뽀뽀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와준 그녀가 참 예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만난 친구처럼 갑자기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었고, 해가 질 때까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 나이 22세, 여자친구는 20세! 둘 다 때 묻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친구 사이에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인생이 아깝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점점 결혼 상대자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불길

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평소에 만나던 장소로 나갔지요. 멀리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뭔가 무거운 짐이라도 든 것처럼 밝지 않았고, 옆에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인사드려.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왜 미리 말 안 했어. 모시고 온다고 했으면 옷이라도 잘 입고 나올걸.”

“괜찮네, 총각! 난 괜찮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네. 초면에 이런 말하기가 참 미안하네만 우리 딸과 그만 만나주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딸만큼은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았으면 하는 게 내 소원인데, 총각네 집도 많이 힘든 것 같으니 헤어졌으면 좋겠네.”

순간 돌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으면 딸을 데리고 나오셨을까’ 하는 생각보다 뭔가 허탈하고 배신감도 들고 심장이 떨어져 나간 듯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리는 비를 다 맞으며 안양에서 신림동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이슬비는 내 마음을 아는 듯 정말 슬프게 내렸습니다. 그날이 그녀와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잊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어 보여주고 싶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던 내가 어느 순간 그녀를 잊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의 아내와 인연이 되면서 아들·딸 낳고 집 장만해 열심히 맘 흘리며 산 결과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가씨도 어디선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니 그 아가씨 엄마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을 키워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군요. 앨범 속에 사진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데, 못 버리고 그냥 추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만나면 그래도 그때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

맞벌이부부에게 아이들 방학은?

2월은 참으로 어정쩡한 달입니다. 다른 달보다 2~3일쯤 짧아 가는 줄도 모르게 슬그머니 3월로 이어지고, 겨울도 아닌 것이 봄도 아닌 것이 아침마다 안개를 슬그머니 풀어놓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달입니다. 어정쩡하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방학과 개학, 다시 봄방학과 졸업으로 이어져 어중간한 계절과 신분 탓에 몸과 마음이 안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봄방학은 숙제도 없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야 방학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희 같은 맞벌이부부에게 아이들의 방학을 좋다고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저녁때가 되어야 집에 돌아와 아이들만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부담이 덜하지만 방학을 하면 아이들만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출근준비를 하기도 벅찬 아침에는 더 그러하지요. 집에서 아침과 점심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놓아야 하고, 혹시 출출할까 봐 간식도 준비해놓아야 하고, 학원에 입고 갈 옷도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늦잠을 자는 아이들이 차려놓은 밥을 잘 먹었는지 챙겨야 하고, 전화를 걸어 학원에 갈 시간이라고 알려주어야 하며 학원에 갔다가 집에 잘 돌아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는 사실 부담됩니다. 한창 바쁠 때 전화를 걸어 “냉장고에 있는 우유 마셔도 돼요?”, “컴퓨터 한 시간만 해도 돼요?”, “텔레비전 봐도 돼요?”, “친구가 놀러온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등을 물어보지요. “이제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도 아이들은 습관처럼 전화를 걸어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난 듯 “문 꼭 닫고 있어라”, “함부로 열

아주지 마라.”, “불조심해라” 등 잔소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챙기는 건 사실 아내입니다. 고스란히 아이들의 어머니 몫이지요. 저도 가끔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챙기지만 아이들끼리 집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 가는 ‘안부’ 정도입니다. “같이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왜 나만 애들을 챙겨야 하나?”는 아내의 말에 그저 유구무언입니다.

학기중에도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급식당번을 하고, 녹색어머니회 일로 두 번, 공개수업이나 발표회 등으로 일 년에 서너 번 학교에 갑니다. 아내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급식당번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하는데, 강제는 아니라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혹시 급식당번에서 빠지면 아이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아이가 기가 죽지 않을까 염려되어 직장에 눈치가 보여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맞벌이부부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급식당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군요. 아내는 급식당번을 하러갈 때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아이의 학습능력이나 친구관계 등을 꼼꼼하게 챙길 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족한 면이나 고쳤으면 하는 생활태도 등을 선생님과 공유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많이 지도한 경험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조언을 아끼지 않지요. 이뿐 아니라 같이 급식이나 녹색어머니회를 하는 학부모들을 사귀고,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얼마 전, 명중이 1학년 때의 어머니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2학년에 진학하면서 같은 반이 되기도 하고, 다른 반이 되기도 했지만 어차피 앞으로 5년을 더 다닐 것이므로 친하게 지내자는 친목 모임이었지요. 하여 그날은 아내보다 제가 먼저 귀가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아이들이



‘앗!’ 하는 소리와 동시에 후다닥 텔레비전을 끄고는 달려와 인사를 하더 군요. 아이들 뒤로 펼쳐진 거실 풍경은 그야말로 ‘돼지우리’였습니다. 거 실 가운데에는 찌개 냄비와 빈 밥그릇, 그 옆에서 텅굴고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들... 학원에 갈 때 입은 옷과 양말이 사방에 텅굴고, 뜯어먹은 과자 봉지·장난감·만화책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난장판 속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뭐야? 언제 먹은 밥이야?”

“점심 먹은 건데요.”

“그러면 점심 먹은 걸 아직까지 치우지 않았던 거야?”

“죄송해요. 빨리 치울 게요.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주세요.”

아이들이 방으로 등을 떠밀기에 못 이기는 척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 오자 아이들이 치우느라 법석을 떨더군요. 저는 못 본 척 욕실로 들어가 씻 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깨끗하게 치워놓았더군요. 저녁밥을 먹으 려고 밥통을 열어보니 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로 밥을 하는 거야 어렵 지 않은데, 반찬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김치찌개를 다 먹어버렸더군요. 망설이던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외식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 버지, 최고!” 소리를 들었지만 모임에 다녀온 아내에게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집에 들어왔더니, 완전 돼지우리더라” 했더니, 아내는 새삼스 럽지 않다는 듯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 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생각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어정 찡한 2월이 아닌 봄비 같은 3월 같은 아버지가 되어보려 합니다. ♥

● 김정수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둔 아버지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 매체에 기고 하고 있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서랍 속의 바람》이 있으며, 책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금 은 늙은 아버지다.

사고치는 아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두 어머니가 상담실을 다녀갔다. 두 분 다 눈물 많은 어머니다. 앞서 다녀간 태식 이 어머니는 행복해서 울었고, 나중에 다녀간 민우 어머니는 걱정 때문에 울었다.

“태식이 방황할 때 잡아주신 은혜 잊지 못할 거예요.”

“태식의 장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정의로운 경찰이 될 날을 고대할게요.”

“아무렴요, 선생님...”

태식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하게 웃었다.

Y대 유도학과에 합격한 태식은 중3 때부터 어지간히도 속을 썩이던 소위 문 제아였다. ‘중3 때부터 흡연, 무단결석, 오토바이, 가솔로 이어지는 일탈행동을 함. 고1 교내 흡연 적발 2회. 금연캠프 참가 예정일에 학교에서 도망친 뒤 밤 11시 귀 가함. 엄마가 짜증을 내며 훈계하자 가솔함. 일주일째 연락두절...’

당시 태식이 어머니는 썩한 얼굴로 상담실을 찾아와 많이 울었다. 울음의 반은 아들 걱정이고, 반은 자기 서러움 때문이었다. 보통 이런 경우, 문제 의 뒤에는 독불장군형의 아버지가 있고, 모자(母子)는 약자로서 동맹 관계에 놓인다. 태식 이의 일탈행동은 무 소불위의 권력을 휘두 르는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교내흡연·오토



바이·무단결석 같은 일탈행동이 학교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용인될 리는 만무하다. 태식은 교내 처벌을 여러 번 받았고, 마침내 자퇴 권고까지 받았다. 자식 교육의 실패를 엄마 탓으로만 돌리는 가부장의 호통소리가 쟁쟁하다.

다행히도 태식의 가출은 일주일로 끝났다. 돌아온 태식은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르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태식이 아버지도 만만치는 않았다. 태식이 학교를 그만 두면 생활비를 일절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태식이 어머니는 불안과 초조로 갈팡질팡하는 상태였다.

“담배는 성인이 되면 피울 수 있는데… 참 어른들은 이상하지, 해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니 말이야. 오토바이는 면허증이 있으니 탈 수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 허락한 자격을 학교가 못 쓰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가출도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 삶의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다만 그러한 삶의 에너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면 모든 게 술술 풀릴 거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을지 스스로 선택해라. 네가 결정하는 대로 적극 도울게.”

“제가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 거죠?”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이지, 크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어.”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주면 분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긍정의 메시지를 주면 희망을 갖게 된다. 결국 태식은 학교 진류를 택했다.

겨울이 지나 고3이 된 어느 봄날, 어머니가 활짝 핀 얼굴로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상담실을 찾았다.

“선생님, 우리 태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한 해가 바뀐 오늘 Y대 유도학과 합격이라는 낭보를 전해온 것이다. 에너지가 강한 아이들은 그 흐름만 돌려놓으면 스스로 해낸다.

“민우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한편 민우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다.

“아버지께서도 동의하셨나요?”

“네. 민우가 밥도 안 먹고 하도 완강하게 침묵하니까.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들더니만.”

민우의 얼굴이 엉망이다. 입술이 다 부르튼고 갈라졌다. 총명하고 끼가 많은 민우지만 그 에너지가 속으로 뭉쳐 있는 상태. 아버지가 둘러친 울타리 속에 갇혀 지내온 탓이다. 남들 다 있는 휴대전화도 없고, 생활 통제가 심해 변변한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했다. 고등학교 입학 초에는 기대감에 부풀어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학교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그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전도사를 만나 매료되었고, 이후 종교에 깊이 심취하게 된 것이다. 민우는 수학여행 체험기조차 하나님 찬양 일색으로 써냈다.

“민우는 효자여서 제 스스로 아버지를 거역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만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위대한 존재지요.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갖게 되자, 평안과 자유의 길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효심과 신앙심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나 봅니다. 고민이 할퀴고 간 흔적이 얼굴에 역력하군요.”

민우의 자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자퇴가 나쁜가? 그렇지 않다. 스스로 결정하고 투쟁해 얻어낸 값진 선택이다.

민우의 행동양식은 겉보기에 태식의 경우와 대조적이지만, 가부장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투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부모가 만든 작은 어항 속에서 금붕어처럼 사는 것이 싫을 때 아이들은 퍼덕대게 마련이다. 아이들의 몸부림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자신의 처지에 실망한 나머지 무기력증에 빠진 채 해파리처럼 부유하며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으니 말이다. 때로 부모가 마련해준 마당은 에너지 충만한 아이들이 가없는 꿈을 펼치기에 너무 좁다. ♥

● 신규진 씨는 ‘자기 존중감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하는 서울 경성고등학교 과학, 상담 교사로, 상담 경험을 <기쁜다고 실망하는 아이는 없다> 등의 책으로 엮었다.

때로는 부모도, 아이도 되는 품앗이부부로 살자



단골가게에 갔는데, 방에서 나오는 주인이주머니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았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벽에 몸을 의지하며 걸음을 떼는 것이 보기에도 걱정스러웠다.

“아이고, 지금은 양반 된 거예요. 요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 길이 어찌나 멀고 먼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엉엉 울었다니까요. 우리 신랑이 깜짝 놀랐지요.”

원인은 허리디스크인데, 20년 넘게 가게를 하면서 얻은 일종의 직업병이었다. 평소 말없이 미소만 띠는 얇진한 이 이주머니가 얼마나 호되게 아팠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랴 싶었는데, 이주머니의 변화에는 다른 속내가 있었다.

“내가 아프니까 우리 신랑이 저녁 상에 소주를 마시고는 내 손을 붙잡고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울더라고요. 별로 표현이 없는 사람인데, 결혼해 이때껏 살면서 처음 봤어요. 애같이 그러니까 가슴이 ‘쨍’ 하면서도 웃음도 나고… 나 참… 하하하.”

이주머니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

편에게 어리광을 부린다고 했다. 시부모를 모시는지라 늘 긴장하며 살았는데, 아프니 남편이 “앞으로는 절대 참지 말고 조금만 불편해도 무조건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병원에 갈 때는 신발도 신겨주고(허리를 구부리기 힘들니까), 목도리는 혼자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자기가 돌려준다고 했다. 아프지만 행복한, 아니 아프기 때문에 행복해진 모습이었다.

얼마 지나 가게에 가니 이주머니는 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다. 표정도 밝고 기분도 좋아보였다. 배달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남편 보고 오늘은 나가서 친구들과 술도 한 잔 하고 놀다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내가 어리광을 부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어리광을 부릴 차례잖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도 병날 거야.”

그렇다. 부부는 서로에게 부모와 자식역할을 섞바꿔가며 사는 신묘한 존재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이 교대될 때 부부살



이는 인생의 안전하고 따뜻한 인큐베이터가 된다.

물건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데, 책에서 보았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으로, 에토 마사무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것이다. 그는 물에다 여러 가지 말을 하거나 글씨를 써서 보여준 다음 물입자가 나타내는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사랑해”라고 말하거나 글씨를 보여준 물의 입자가 크리스털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나타내고 “망할 놈”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결정 대신 뭉개지고 일그러진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말과 마음이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새삼 깊이 깨닫고 놀랐다.

내가 떠올린 사진은 부부애라는 글씨를 보여주었을 때 물이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크리스털 장식이 찬란하게 달린 별이 두 개 겹쳐 있었다. 그런데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아서 마치 큰 별이 작은 별을 품고 있는 듯했다.

여기서 부부 중에 누가 큰 별이고,

누가 작은 별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부애라는 말 속에는 서로 품고 품어주는 관계성이 들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적지 않은 아내들이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쉽게 공감한다. 물이 보여준 바에 따르면 이견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기꺼이 ‘큰딸’이 되지 못하는 데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자들 스스로 ‘어른 역할’에만 치우쳐 ‘자기 안의 어린아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에게도 늘 어른스럽기만 기대한 나머지 ‘큰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실망과 무시를 묻혀낸다.

피차 어른이기만 한 관계는 의연하고 의젓해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힘든 것인가. 연극배우들이 관객 앞에서 긴장미 넘치는 연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막간에 무대 뒤에서 물도 마시고 옷도 풀어 젖히는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부란 서로에게 이런 막 뒤의 휴식처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 외의 남녀관계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아기 노릇을 할 수 있는 상대’라서 빠져들었다고 하는 예가 적지 않다. 어떤 원로방송인이 방송을 오래 하고 나니 점점 마이크가 무서워진다고 했듯이 삶의 연륜이 깊어지면 세상살이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도 같이 커진다. 세상이 어른이라고 기대하는 만큼 내면의 어린애는 어리광이 더 절실해진다.

팽팽히 당겨지기만 한 고무줄은 탄력을 잃는다. 어른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끔 아이로 살 수 있어야 한다. 부부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이로 살 수 있는 방도로 고안된 사이가 아닐까. 부모도 되었다가 아이도 되는 품앗이 부모, 그게 부부 아닐까? 그렇게 사는 부부라면 물이 보여준 대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별같이 살 수 있게 되리라. ♥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학자로 활동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식탁에 들인 자연의 향기 봄나물



이달의 요리는 봄나물(2009년 2월 13일 방송)입니다.

다. 냉이는 참 신기한 봄나물입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밭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여보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물은 '뜨다'고 하지만 냉이는 '캔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냉이보다는 황새냉이에 더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황새냉이는 다른 봄나물과 달리 뿌리를 먹습니다. 황새냉이를 캐 때는 과도나 호미보다 삽이 더 적합합니다. 힘 좋은 총각들의 나물인 것이지요. 봄채녀들은 호미나 과도 하나씩 들고 냉이를, 총각들은 삽을 들고 황새냉이를 캐니다. 산 너머 남촌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처녀·총각들의 마음은 어느새 공밭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봄나물의 향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cooking recipe 1

● 레시피_우영희(요리연구가)

재 료

생취 300g ●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데쳐 내어 찬물에 행궤 물기를 꼭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생취나물
볶음

※ 만들기

- ① 다진마늘 1과1/2큰술, 청장 1큰술, 소금 1/2작은술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다.
- ② 기름 두른 팬에 버무린 취나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볶는다.
- ③ 물 3~4큰술을 넣고 뚜껑을 덮어 3분간만 조리한다.
- ④ 마지막에 참기름 1작은술과 통깨를 뿌려 완성한다.

cooking recipe 2



재 료

냉이 200g

●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한 번 데쳐낸다.

바지락 2봉지

● 해감하여 준비한다.

멸치육수 6~7컵

● 멸치국물은 약하게 준비한다.

된장

● 2~3큰술

※ 만들기

- ① 물 2컵에 바지락을 데쳐내고 물밑에 가라앉은 해감은 버린다.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바로 꺼낸다.)
- ② 멸치국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된장을 푼다.
- ③ 된장을 푼 국물이 끓으면 데쳐낸 냉이를 넣고 바지락을 넣어 완성한다.

냉이
된장 무침

※ 양념장

고추장 1작은술, 된장 1/2큰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cooking recipe 3



재 료

냉이 200g

●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데쳐 내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양념장에 조물조물 무친다.

작년 봄에 친구들과 등산을 갔는데, 등산로 주변에 봄나물이 많더라고요. 시골에서 나고 자라 나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던지라 친구들에게 요건 무슨 나물, 저건 무슨 나물하며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개울가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뜬은 나물도 쌈거리로 꺼내놓았지요. 친구들은 “이거 정말 먹어도 되는 풀이야?” 하며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제가 먼저 쌈을 싸먹자 주저없이 따라서 싸먹더군요. 잠시 후, 자꾸 말이 꼬이고 혀가 굳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곤해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빨싸! 우리가 먹은 건 나물이 아니라 당귀잎 비슷한 독초였던 겁니다. 부랴부랴 개울물에 입을 행구고, 껌을 씹고 사탕까지 먹었지만 혀는 점점 굳어만 가고... 우린 병어리 삼룡이가 되어 산을 내려와 병원을 찾은 후에야 몇 시간 동안 닫혔던 말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고영배 님

우리 집 냉동실에는 1년 365일 냉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친정엄마 덕분이에요. 초봄, 아직 땅이 차가울 때 친정엄마는 동네 뒷산에 오르시며 항상 냉이를 뜯으세요. 하루종일 뜯어 한 이름의 냉이를 일일이 씻고, 뿌리도 다듬고 깨끗하게 지퍼백에 차곡차곡 넣어 냉동을 시켜 저와 새언니에게 1년 내 먹을 만큼 해주십니다. 힘드시니 하지 말라고 그리 말씀드려도 너희들 식탁에 냉이 향이 풍길 걸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세요. 작년에 캐주신 냉이가 약간 남았는데, 저게 다 떨어질 때면 분명 또 올 해 먹을 냉이를 가져오시겠지요. 요즘도 하루종일 냉이만 뜯고 계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만 뜯으세요, 제발.

-김설희 님

어린 시절 저희 8남매는 밥 대신 쭈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병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 우리 8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열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밥으로 다 먹는 날은 손으로 뜯을 정도였으니까요. 쭈이 나기 시작하면 도저히 쭈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밥 대신 쭈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 또 쭈이야. 만날 왜 우린 쭈만 먹어?” 밥 대신 하얀 밀가루 옷을 입고 폭 썬서 올라온 쭈버무리. 우린 쭈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마저도 충분히 드시길 못한다는 걸 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부엌에서 쭈버무리를 찢 천에 묻어 있는 쭈버무리를 주걱으로 긁어 드시는 어머니를 보았으니까요.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손정호 님

강원도 평창 외솔박이로 봄나물인 취나물을 뜯으러 갔습니다. 참취는 참기름을 넣고 무치면 강한 향이 입안을 가득 맴돌아 밥맛 없고 나른해지는 봄에는 영양제보다 나은 보약 같은 나물입니다. 참취는 데쳐서 양념한 된장에 싸먹고 먹취는 밥과 함께하여 양념간장에 비벼 먹으면 그 또한 봄의 별미입니다. 또 한 참취는 갯잎장아찌처럼 담가 여름에 밥에 얹어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장아찌를 담글 때 업나무의 순과 오가피의 잎을 함께 넣어 담그면 한약 같은 향이 나며, 정말 1년 동안 먹어도 물리지 않아요. 장아찌 담글 때 간장·설탕·청양고추·통후추·소주 약간과 물을 장아찌의 분량에 맞추어 끓여서 식힌 뒤 부은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작년에 담근 장아찌를 이번 보름날에도 상위에 놓았더니, 별미라며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옥란 님

‘막장’과 ‘명품’의 차이

탄광의 갱도 끝에 있는 작업장. 국어사전에 적힌 ‘막장’의 정의다.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세상의 끝, 사람을 극한으로 모는 그곳. 하지만 요즘 TV 드라마는 이 ‘막장’을 드라마에 바르는 ‘썸장’ 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침부터 밤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금 TV는 ‘막장드라마’ 들 천지다.

KBS <꽃보다 남자>는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해 많은 비난을 받았고, 주인공이 불륜을 저지른 전 남편과 그의 상대에게 복수하는 SBS <아내의 유혹>은 팬들조차 ‘명품 막장’이라는 비아냥조의 평가를 하기도 한다. TV에서 자꾸 ‘막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독하고 자극적인 요소를 넣는 것을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삶이 팍팍할 때, 모든 생각을 정지하고 볼 수 있는 ‘막장드라마’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진통제일 것이다.

다만 이 화학조미료 같은 ‘막장’에 지친 사람이라면, MBC <돌아온 일지매>를 보는 것도 시도해볼 만한 일일 것이다. 고우영 화백의 만화 <일지매>를 원작으로 한 <돌아온 일지매>는 지금 ‘막장 드라마’와 정반대의 길에 서 있다. 이 드라마에 불륜이나 이치메 같은 자극적인 설정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돌아온 일지매>에는 10분마다 계속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 만드는 인위적인 갈등도 없고, 듣는 사람의 귀가 피로할 정도로 악을 쓰는 캐릭터들의 따발총 같은 대사도 없다. 대신 <돌아온 일지매>는 느긋하게 영상으로 시청자에게 말을 건다. 이른바 ‘책녀’로 불리는 나레이터가 화면 속 상황에 대해 설명하



면, <돌아온 일지매>의 카메라는 배우들의 얼굴을 크게 보여주는 대신 한 발짝 더 물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조선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돌아온 일지매>는 그 시절 사람들의 모습을 차분히 보여주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시절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독특한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그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고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갔구나 하는 기분. <돌아온 일지매>는 TV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자극 대신 무언가를 생각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애써 일일이 설명하는 대신 수많은 감상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돌아온 일지매>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이 ‘막장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표 노릇을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전에도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저조했던 드라마들이 많았다. 하지만 <돌아온 일지매>는 높은 완성도뿐만 아니라 화려한 액션과 일지매와 월희(윤진서) 사이의 사랑 등 흥행 요소도 다분하다.

‘막장드라마’가 화학조미료를 가득 넣은 불량식품이라면, <돌아온 일지매>는 재료의 맛만으로 영양과 맛을 모두 끌어낸 명품 요리다. 어쩌면 <일지매>가 <돌아온 일지매>가 된 것은 그 때문일 수도 있다. 드라마 속에서 일지매는 청국에서 돌아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한다. 그리고 <돌아온 일지매>는 ‘막장드라마’의 시대에 여전히 볼 만한 드라마가 있음을 증명한다. 돌아온 일지매가 조선의 백성을, 그리고 TV 드라마를 구할 수 있기를. ♥



엄마, 여행가요

2월 여행은 청도·강화·무안 등지였다. 먼저 청도에 가서 미나리비빔밥·콩나물밥 촬영을 했다. 혼자되신 두 분 다 작은 별채에 장작불을 지피고 따스게 지지며 겨울을 나고 계셨다. 본채는 얼음땡으로 놔두고 설·추석이나 되고 자제분들 올 때나 보일러를 켜다고 한다. 가마솥에 콩나물밥을 지어 먹던 2월의 첫 일요일, 바람 쌀랑해 뒹뒹미가 시렸지만 벌은 봄벌이어서 모처럼 시골밥상을 마당에 펼쳤다. 미나리비빔밥도 콩나물밥도 양념장이 별미였다.

둘째 주엔 강화를 찾아갔다. 어르신 살림씀씨가 정갈했다. 50년도 넘는 흙벽에 대·중·소 크기별로 가마솥 세 개가 기름 먹어 반질거렸다. 그 댁에선 마지막 쑥칼국수와 쑥버무리를 썰먹었다. 어릴 때 일요일이면 해먹던 특식, 엄마표 칼국수의 추억이 겹쳐지면서 흥두께 방망이로 밀가루 뿌려가며 쑥국수를 밀었다. 일단 중간 가마솥에 무, 다시마, 멸치 약간, 양파를 넣어 육수를 우린 후에 펄펄 끓으면 다 건져내고 쑥칼국수 썰 것과 해감한 바지락을 동시에 넣고 끓여오르면 다 된 것이다. 큰 가마솥엔 쌀가루와 한번 데쳐낸 쑥을 소금으로 간을 하고 버무려 형질을 깔아 질시루에 잘 얹히고 기다린다. 도대체 할머니들의 조리법은 계

량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냥보면 알아” 하시면서 “인제 한참 있다보면 된 거야. 좀 기다려야 돼.” 이런 식이다. 그리고 양념장도 간장·고춧가루·파·마늘·깨소금·참기름을 그냥 적당히 알아서 넣는다. 하지만 그분들의 눈대중은 같았다. 더도 덜도 아닌 딱 맛있는 양념장이 된다. 쑥버무리를 찢 질시루는 처음 보는 모양으로 가마솥 끓는 물에 그냥 놓아도 수표면과 한 뼘 정도 떠 있는 모양이다. 다 익은 떡시루 밑 가장자리에 누룽지가 되어 붙은 밀가루반죽은 너무 맛났다. 할머니들의 어렵짐작을 따라하려니 참 재미있었다.

셋째 주의 무안은 고즈넉하고 깔끔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흙집의 흔적이 많이 남아 보기 좋다. 바닷가에 즐비한 가지각색 내온의 횃집, 조개구이 간판이 하나도 안보이니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무안 읍내 나가면 낙지골목이 따로 있다. 터미널 앞 차들이 서서 기다리는 곳에서 택시를 타고 공중목욕탕을 가봤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여성시대에 안부를 전했다.

세계 5대 개펄에 든다는 무안의 너른 개펄 위로 비가 내렸다. 비속에 바람 속에 봄 향기가 묻어났다. 추웠지만 기분 좋다. 봄가뭄뿐 아니라 작년부터 목말라하는 곳, 촉촉이 넉넉히 적셔주었으면... 봄 냄새, 봄 향기를 어찌 안다고 말할까? 단언컨대 안다.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설명은 못해도 바람엔 풀내도 흙내도 숨어 있고, 날내도 난다. 얼어붙음에서 놓여나는 간지러운 자유의 냄새!

엄마 방을 바꾸어 봤다. 봄이니까. 돌침대는 그걸 사주었던 둘째 회경이가 도로 가져가고 더 널찍이 물이 돌면서 따뜻해지는 넓은 요로 바뀌드렸다. 이리저리 텅굴 거릴 공간이 넓어졌다. 엄마는 지난해 12월말부터 봄까지 많이 누워 계셨다. 그래도 기침 많이 줄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치료중이다. 막내 조카딸 대학 들어가면 엄마 모시고 우리 딸 셋과 조카딸애랑 다섯이서 여행가기로 했는데... 언제쯤 노래가 아닌 현실이 될까. 그래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만 노래가 됐다. 엄마, 기운 차리고 우리 꼭 팔순기념으로 잔치하지 말고 여자 삼대가 여행갑시다. ♥



건강챙기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건강을 과신한다. 보통 서너 살에서 열 살 이상 젊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다. 몇 년 전, 한 방송국에서 찾아와 건강관리도 잘하고 젊어 보인다면 건강 체크를 해보자고 했다.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과연 몇 년 정도 젊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내심 10여 년 정도 젊게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담당 피디, 카메라맨과 Y대 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갔다. 나보다 담당피디가 더 기대했다. 뱃속의 상태와 밖으로 보이는 얼굴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취재하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 이 방 저 방 속전속결로 검사를 했다. 검사가 끝나고 담당 실장인지 하는 분이 오신 김에 서비스로 위내시경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내시경이 서비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우습기도 했다. 남들은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하고서 받는 게 위내시경인데... 나이 들어 공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나 보다. 내시경 카메라를 꿀떡 삼키고 말았다. 여기저기 훑어보더니, 이상이 없었다.

마치 한의원에서 간단하게 진맥 짚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결과가 나왔단다. 기대 반 자만심 반으로 담당의사

와 피디와 마주 앉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듣기 시작했다. 몸에 별 이상은 없으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담당의사의 설명이었다. 최소한 신체나이가 5년 정도라도 젊어줘야 하는 데 겨우 1년 정도 젊다니, 젊다고 하기도 체면이 말이 아닐 뿐 아니라 부끄러울 정도였다. 담당피디의 눈치를 슬쩍 보니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다. 고심하던 피디는 털어내듯 말했다.

“신체나이와 얼굴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뱃살과의 전쟁으로 바뀌어야겠네요.”

썩썩한 젊음을 은근히 과시하려던 나의 꿈은 뱃살과의 처절한 전쟁터에 내 동맹이 처져버렸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온 세상에 젊음의 비결, 특히 내 장의 젊음을 빼기려 했던 나의 계획은 무참히 사라지고 말았다. 부끄러움에 어색하게 병원을 나오면서 겸허해지기 시작했다. 나이에 따라, 나이만큼 얼굴도, 속의 내장도 사용연한에 따라 변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아마도 그때 이후, 내 건강에 대해 필요 이상의 과신을 버린 것 같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피곤하면 피곤해 쉬겠다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몸을 쓰러질 정도로 혹사해 놓고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괜찮다고, 염려 말라고 큰소리치던 나는 약간 엄살도 떨기 시작했다. 그래야 더 오래 살 것 같았다.

‘골골 팔십’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깨를 지나치게 쭉 펴고 팔에 생긴 알통 자랑하다가 비명횡사(?)하느니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알미울 정도로 내 건강을 챙기기로 했다. 그전 같으면 어림없을, 알 수 없는 이름의 알약들을 아침마다 아내가 주는 대로 들이키기 시작했다. 어쩌다 빠뜨리고 안주는 날은 오히려 아내가 섭섭할 정도로 얼굴이 변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염려증을 갖게 된 내가 어색하긴 하지만 유난히 건강에 별별 떨던 몇몇 선배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그들이 아직 청춘인 줄 알고 무리하는 선배들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사는 걸 봤으니 말이다. 너무 챙긴다고 핀잔주는 친구들에게도 할 말은 있다.

“난 애가 어려서 오래 살아야 돼!” ♥



내 마음에 봄을

2월의 마지막 주, 애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난 1년,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았다. 수능·입사 등등 인생에 큰 획을 그은 몇 가지를 제쳐두고 엉뚱한 것이 떠올랐다. 2006년, 일주일 간 아일랜드로 떠난 여행이었다. 수도 더블린에서 이틀을 보내고, 셋째 날, 가방을 끌고 무작정 기차역으로 갔다. 표를 끊고, 막 출발하려는 열차에 올랐다. 내가 가는 곳은 ‘코크’라는 작은 도시였다. 여행책자에는 저렴하고 기차역에서 가까운 숙소들이 자세히 소개돼 있었다. 기차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라디오박물관이 있다고 했다. 라디오박물관이라니, 얼마나 그럴싸한가. 아직도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니, 분명 볼 만한 것들이 전시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획없이 나선 기차여행이지만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 때쯤 목적지에 도착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왔다. 지도에 표시된 라디오박물관을 찾아 나섰다. 서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주택가를 지나니 공원이 나왔다. 산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날씨도 쌀쌀해졌다. 공원 옆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구름 다리가 놓여 있었다. 나무로 만들어져 운치는 있었지만,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다. 수영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다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먼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한동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오르막길을 헤맨 끝에 산꼭대기에 위치한 라디오박물관을 찾았을 땐,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한 후였다.

“여기가 라디오박물관인가요?” 아무리 봐도 박물관처럼 보이지 않아 안내원처럼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곧 문 닫을 시간인긴 하지만 원한다면 보여드리지.” 책자와 달리, 입장료도 받지 않는 걸 의아해하며 할아버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컴컴한 돌계단을 올라 안내원 할아버지가 나무로 된 커다란 문을 열었다. 이빨새.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반나절을 찾아 헤맨 라디오박물관이 여기라니! 도시 외곽에 위치한 라디오박물관은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가까웠다. 라디오방송의 원리를 그림으로 그려 벽에 붙여두고, 오래된 라디오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었다. 이 지역 라디오방송국의 역사와 주파수 대역과 같이 여행객들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하는 것들이 전시돼 있었다. 지도만 믿고 찾아간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다. 체계적인 설명과 희귀한 초기의 라디오들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내 욕심이었다.

그때 알았다. 기를 쓰고 찾아 헤맨 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의 여행은 달라졌다. 그날 밤, 시내로 돌아간 나는 서점에서 소설책을 한 권 사서 나머지 여행 내내 잘 읽었다. 여행에서는 뭔가를 죽도록 찾아나설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행을 통해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뭔가 신기하고 짜릿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기대는 기대하는 만큼의 만족을 가져다주지 않을 때가 많다. 이제 곧 봄이다. 봄이 되면 날씨도 화창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덩달아가게부 사정도 나아지고 집집마다 돈으로 몸살 앓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기온이 올라가고, 꽃이 핀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이 봄이어야 봄도 온다. ♥

모로의 〈사포의 죽음〉

사랑에 빠진 소녀의 모습은 예로부터 시와 회화의 매력적인 주제였습니다. 고대의 여성시인 사포(기원전 610~580년경)는 그런 주제를 매우 잘 표현한 시인으로 꼽히지요. 사포는 방대한 작품을 쓴 것으로 추정되나, 완전한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시는 28행짜리 한 편뿐이고, 모두 합해서 700여 행에 이르는 인용이나 단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위대한 사포도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고, 또 그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포는 레우카스 절벽의 ‘연인들의 투신 바위(Lovers leap)’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면 죽지도 않고 상사병도 낫는다는 속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포는 미틸레네의 선원 파온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끝내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어 투신을 감행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화가들이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사포의 비극을 그렸습니다.

사포의 최후를 그린 대표적인 걸작으로는 상징주의 화가 귀스타브 모로의 〈사포의 죽음〉이 첫손가락 꼽힙니다. 작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이 그림은 시인의 비극적인 종말을 원초적인 슬픔의 풍경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광활한 공간 너머로 뉘엿뉘엿 지는 해는 시인의 살아생전 모든 열정을 토해내고, 이를 배웅하는 바위와 바다는 복받쳐오는 슬픔을 무한한 인내로 참고 있지요. 이들의 표정은 대단히 드라마틱하지만, 그림의 진정한 초점은 화면 왼편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비록 투신했으나 평안히 잠들어 있는 사포의 주검. 그 화려한 주검을 한 마리의 흰 새가 저승에서 마중 나온 사자인 양 맞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삶은 이울었지만, 시는 영원하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



*모로, 〈사포의 죽음〉,
1876, 나무에 유채, 26cmx21cm, 생 로, 생 로 미술관